

우리 대학 2026학년도 정시 1,770명 몰려 전년 대비 0.21%p 올라 ... 지역 사립대 '군건'

우리 대학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6.04대 1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상승세를 보였다. 293명 선발에 1,770명이 지원하면서 2025학년도 5.83대 1 대비 0.21%p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경제학과가 20대 1로 전체 학과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영학부와 산업공학과도 각각 19대 1을 기록하며 인문·상경·공학 계열에 대한 수험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형별로는 나군 일반전형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14.63대 1로 집계된 나군 일반은 가군 일반(11.10대 1)보다 3.53%p포인트 높았다. 반면 특성화고졸업제직자전형은 0.05대 1에 그쳤다.

의·약학 계열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에서는 약학과가 6.11대 1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치의예과 4.18대 1, 의예과 4대 1이 뒤를 이었다. 실기전형은 체육학과가 7.67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원 내 기준으로는 9.4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초 합격자는 이달 21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총원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5일부터 12일까지, 추가모집은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입학처 관계자는 “모든 입학 절차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2026학년도 정시 모집 포스터

글로벌 대학 '3대 특성화대학 신설' 본격 추진 무전공·무학과 안착 위한 방안

지난달 18일, 우리 대학이 '글로벌 대학 참여학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대학 1차 연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3대 특성화대학 신설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웰에이징(Well-Aging) 특성화를 핵심으로, 글로벌 대학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학과 단위의 융복합 전공 지원을 통해 학과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전공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 성과를 높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특성화대학 신설과 무전공·무학과 운영의 안착을 위한 실행 방향도 공유했다. ▲모델형 융복합 전공 설계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전공-진로 가이드 전담 인력 배치 ▲정기적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소통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무전공·무학과 운영



▲글로벌30추진본부 김석준 부분부장이 발표 중이다

개선 방안 ▲교육혁신의 구체적 추진 방향 ▲학과 중심 교육체계 개편 필요성 등을 주제로 참여학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우리 대학은 이를 향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선중 글로벌30추진본부장은 “글로벌 대학은 대학 본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학

과와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혁신 프로젝트”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조선대학교만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대학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ekmdn@naver.com

안영준 의과대학장, 학사 운영 정상화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의과대학 안영준 학장이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안정화와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달 31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안영준 학장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의과대학 학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 중심의 학사 관리 원칙을 견지하며, 교수진 및 행정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 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의과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다.

안영준 학장은 “이번 표창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이기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노력해 준 교수진과 교직원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과대학은 앞으로 교육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학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 의료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2025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글로벌 30' 부문 수상

우리 대학이 지난달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일반대학 '글로벌 30' 부문 대상을 받으며 지역 기반 혁신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은 한국대학신문이 주관하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 원격대학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공신력 있는 시상으로, 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 우리 대학은 이 가운데 '글로벌 30'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28일 조선간호대와 통합해 '글로벌대학30'에 최종 선정이 된 바 있다. '웰에이징(Well-Aging) Asia No.1 대학'이라는 비전 실현에 속도를 내며 ▲바이오메디 ▲에이징테크 ▲라이프케어 3대 특성화를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웰에이징 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치매 유전체 데이터 활용 연구로 글로벌 웰에이징 허브 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해 지역 안정과 인재 순환을 이끄는 글로벌 대학 모델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수상은 조선대학교가 추진해 온 글로벌 혁신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인재 양성, 웰에이징 산업을 주도하는 융합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우리 대학 개발 '광주 AI 모빌리티 위성' 누리호 6차 발사 선정

우리 대학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반 큐브위성 '광주 AI 모빌리티 위성(이하 GAIMSat-1)'이 누리호 6차 발사 부탑재 위성으로 최종 선정됐다. 위성은 2027년 중반기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약 53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GAIMSat-1의 핵심 임무는 우주 환경에서 AI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특히 위성 내부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처리하는 온보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을 실증해, 향후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우주 자율비행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대학, 연구 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GAMA)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AIC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 혁신기관과 ▲해웍스 ▲스페이스랩 등 지역 기업이 참여해 지역 우주항공·AI·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

우리 대학은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자체 개발 큐브위성 사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6년 중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에도 위성 탑재가 확정돼 있다. 이번 6차 발사 선정으로 우리 대학은 누리호에 위성을 세 차례

연속 탑재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내 우주기술 선도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지역 대학의 우주 기술력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GAIMSat-1 개발을 총괄하는 항공우주공학과 이현재 교수는 "이번 선정은 조선대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미래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연구 기반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태조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산업실장도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자율주행, 정밀 내비게이션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우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전국민 기자

jkmjkm0106@naver.com

교무 위원 5·18 민주묘역 참배, 2026년 개교 80주년 열었다



▲교무위원들이 우리 대학 동문 안장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우리 대학은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달 2일 우리 대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년 시무식을 개최한 뒤, 교무 위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며 2026년 새해와 개교 80주년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참배는 김이수 이사장과 김춘성 총장, 강희숙 행정부총장, 교무 위원, 조민혁 총학생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학 구성

원들이 민주·인권·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우리 대학의 역사적 책무를 함께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국립 5·18 민주묘역 제1묘역과 제2묘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으며, 우리 대학 동문으로 민주화 과정에 헌신한 김동수·김기삼·이강하·허규정·문병란 동문의 안장 묘역을 찾아 그 뜻을 기렸다.

우리 대학은 개교 80주년인 2026년을 맞이해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짚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환의 해로 삼아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과 연구, 대학 운영에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80주년을 만들어가며, 광주를 대표하는 민립대학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이사장은 "개교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의 시작을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함께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조선대학교는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대학의 역사 속에서 계승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시각문화큐레이터학과 졸업 전시 성료



▲박소연 큐레이터, 김민성 작가의 <폭발 속 내재하는 힘>

우리 대학 문화콘텐츠학부 시각문화큐레이터학과가 졸업 전시 'Newniverse : 미지의 세계로의 항해'를 개최했다. 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미술대학 2층 미술관에서 진행됐으며 전공 졸업생 6명이 주최했다.

전시장에는 회화와 미디어, 설치 등 70점의 작품이 전시됐고,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전시를 보였다.

'뉴니버스(Newniverse)'는 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보편적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세계의 질서와 인식 구조가 새롭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는 사회 구조에 질문을 던지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전시는 ▲박소연 큐레이터 <미지의 재난 : Mediated Disaster> ▲위혜영 큐레이터 <Homo Narrans : 이야기하는 인간> ▲구민주 큐레이터 <다시 이어질, 연

聯> ▲오경민 큐레이터 <Reborn : 이름 없는 것들에게> ▲김현진 큐레이터 <조각난 마음들을 위한 안식> ▲김서울 큐레이터 <공존의 이유 : Reason for Coexistence>의 총 6개의 전시로 구성됐다.

전시 유형별 주제는 ▲미디어 속 재난 이미지의 소비와 현대인의 무감각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간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사물의 효용성 비판과 존재론적 가치 회복 ▲불안을 마주하는 예술 ▲멸종위기 동물과 인간의 공존 총 6가지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사회의 다양한 면을 새롭게 마주하게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예비 큐레이터들은 개별적으로 탐구한 주제와 해석을 바탕으로 미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도가 모여 젊은 세대의 감각과 고민이 예술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총장 김춘성 / 편집인_겸 주간_지병근

편집국장_박지인 / 인쇄인_박만수

주 소_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062-230-6162 / FAX_062-234-3014 / 행정실_062-230-6166

2025년 한 해 동안 조대신문이 발행한 신문의 1면을 모아 정리했다. 각 1면은 발행 순서에 따라 배열했으며, 1면에서 다른 주요 기사와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고자 한다.

[illegible]

▲ 1168호(2025. 04. 07)

사시
 한국문화·관광·언어·사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자격증·학점·학점·학점

대신부

조선대학교 신문화부
 The Chosun University Culture Center

www.chosun.ac.kr/culture 010-3700-11370 3시간 5분 2018년 1월 12일 토요일 19:30

조선대학교 신문화부 주최 '대신부' 3시간 5분 2018년 1월 12일 토요일 19:30

인맥터스 조선 BUZZLY팀, 골똥 살기로 전국 3위 수상

이제 새해의 첫 행운을 받아 축하드립니다!
 2017년 12월 15일(수)에 열린 '2017년 전국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이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새해의 첫 행운을 받아 축하드립니다!
 2017년 12월 15일(수)에 열린 '2017년 전국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이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A등급 획득으로 교육혁신 우수 학교 혁신 정책 인증

교육혁신 지원사업(2017) 대학 혁신 우수 학교 혁신 정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교육혁신 지원사업(2017) 대학 혁신 우수 학교 혁신 정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출연인물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고령화연구대학(AUGN) 정회원 승인

우리 대학은 고령화연구대학(AUGN) 정회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고령화연구대학(AUGN) 정회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고령화연구대학(AUGN) 정회원 승인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맥터스(BUZZLY)팀은 '골똥 살기'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국 3위 수상(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171호(2025. 09. 01)

[illegible]

▲1174호(2025. 12. 01)

2026학년도 제39대 총학생회 '시그널(Cgnal)' 조민혁(정) 박진성(부) 당선

지난달, 우리 대학은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2026학년도 총학생회 선거는 'Cgnal' (회장 후보 조민혁, 부회장 후보 박진성) 후보가 단독 출마하며 투표율 51%를 넘어 당선됐다. 조대신문이 올해 활동할 새로운 총학생회 출범을 맞아 총학생회 'Cgnal'의 활동 방향과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듣기 위해 조민혁 학생회장과 박진성 부학생회장을 인터뷰했다.

가장 먼저 'Cgnal' 총학생회는 당선 소감으로 당선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번 당선은 개인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들었던 다양한 목소리들을 실제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총학생회의 이름 'Cgnal'에 담긴 뜻을 물었다. 'Cgnal' 총학생회는 'Cgnal'은 'Chosun University'와 'Signal'을 결합한 이름으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연결하는 신호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캠퍼스 곳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의견과 문제를 포착해 학교와 학생 사이를 잇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그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신호(Signal)였고, 우리 대학(Chosun University)과 결합해 'Cgnal'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선거운동명의 의미와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Cgnal'에 담긴 의미는 'Cgnal' 총학생회가 말한 총학생회 활동의 핵심 키워드와도 맞닿아 있다. 'Cgnal' 총학생회는 이번 총학생회의 핵심 키워드로 '연결'을 제시했다. 'Cgnal'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이 개인의 불만으로 남지 않고 총학생회를 거쳐 학교의 논의 구조 안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라며 “학생과 학생, 학생과 총학생회, 그리고 학생과 학교 본부 사이에 존재하던 거리감을 줄이고 의견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번 총학생회의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거 우리 대학 총학생회의 어떤 점을 계승하고 차별화할 것인지 묻자 “이전 총학생회들이 만들어 온 학생 자치의 틀과 경험



▲제39대 총학생회 'Cgnal' 총학생회장 조민혁(좌), 부학생회장 박진성(우)

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총학생회에서 이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우들이 총학생회의 활동을 결과 위주로만 접하게 되어 과정에 대한 체감이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결정의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총학생회가 멀리 있는 조직이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에 관한 인터뷰도 진행했다. 'Cgnal' 총학생회는 진로 공약으로 GLOCAL 인턴십 트랙 신설과 직무 역량 인증제를 포함한 진로 취업 포털 구축과 2026 CSU 진로 취업 FESTA를 제시했다. 또한 교육·소통 공약으로 ▲세부 성적 공개 의무화 ▲성적 정정 사유 기재 의무화 ▲성적표 세부항목 표기 확대 ▲예비군 훈련기간 중 수업권 보장 ▲인권 침해 실태조사 ▲수강 신청 철회 제도 도입 ▲수강 신청 TF 신설을 공약했고 소통·문화 공약으로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학생 정원제도 ▲문화의 날 ▲국토대장정과 사회봉사단 ▲가을 대동제 통합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 복지 공약으로 ▲

기숙사 통금 시간 폐지 ▲제휴 통합과 안내 SNS 활성화 ▲캠퍼스 편의시설 안내 지도 제작 ▲공동 구매 확대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개선 ▲캠퍼스 안심 벨 개선 및 추가 설치 ▲교내 환경 TF 신설 ▲팀블러 세척기 설치 ▲냉난방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에 대해 질문하자 'Cgnal' 총학생회는 공약 이행의 출발점은 정확한 의견 수렴이라고 설명하며, 임기 초에 학우들의 의견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구조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약 이행 여부를 단순히 이행 여부만 공개하기보다, 현재 진행 단계와 지연 사유까지 함께 공유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이 어디까지 논의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총학생회의 역할도 명확해진다고 생각한다”라며 “정기적인 진행 상황 공개와 이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총학생회 활동 전반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드러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Cgnal' 총학생회

는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것은 결과보다 변화의 과정에 함께해주시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반응하며 결과로 증명하겠다”라고 전했다. 'Cgnal'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대학 학우들의 신호에 언제든지 응답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앞선 인터뷰와 이번 총학생회의 이름 'Cgnal'에 담긴 뜻에서 볼 수 있듯 새로 출범한 총학생회 'Cgnal'은 소통을 가장 강조한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총학생회의 목표가 무엇인냐고 묻자 'Cgnal' 총학생회는 이번 임기 동안 “학우들이 총학생회에 말하면 바뀐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밝혔다. “거창한 변화보다도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개선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라며 “학우들의 의견이 접수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논의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매년 바뀌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개선하고 학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존재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자치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관심은 나날이 줄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단독 후보로 당선됐고,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회도 단일 후보였다. 또한, 개표를 위한 투표율이 충족되지 않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선출 투표 기간이 며칠간 연장되기도 했다. 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과대학 학생회를 포함한 총학생회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손뼉이 맞아야 박수를 치듯 총학생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총학생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학우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견제 또한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제39대 총학생회 'Cgnal'이 학우들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연결해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전국민 기자

jkjkm0106@naver.com



교수칼럼

갈증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시간에 대한 유명한 진술 중에 「고백록」의 저자 성 어거스틴의 말이 있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평소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답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시간이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 뒤로는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참조했다는 시간론이 길게 이어지는데 그건 무시하기로 하자. 이 말에 담긴 뜻만 생각한다면 이렇지 않을까. 시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몰라도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비단 시간 뿐이겠는가. 사는 게 무엇인지 몰라도 살아갈 수 있으며, 돈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도 편의점 알바는 가능하다. 학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그렇다.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면 머리만 아플 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아도 학교 다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인문학이

란 그런 귀찮은 질문들에 답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굳이 묻지 않아도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쓸데없는 질문들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인문학자라고 한다. 성 어거스틴도 그런 질문에 매달렸던 사람인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다 보니 새삼 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것이다. 답도 없는 그 질문에 그는 「고백록」의 후반부를 할애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길게. 그 책은 성인 어거스틴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어거스틴 외에도 시간이 무엇인지, 그 궁금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많았을 텐데, 그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과와 이과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거스틴은 문과생, 아인슈타인은 이과생인 것이다. 둘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를 것이고 따라서 둘 사이에 대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 둘이 똑같은 질문에 매달렸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그들의



오 문 석 교수
(국어국문학과)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굳이 묻지 않아도 사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을 그런 질문에 매달리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쓸데없는 질문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바야흐로 검색의 시대인 것이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중무장한 검색창에 온갖 질문들을 쏟아놓는다. 그런데 그 질문은 옛날과 같지 않다. 자기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려 노력했던 문과생 어거스틴, 이과생 아인슈타인에 비해서, 우리들은 질문만 던질 뿐, 답은 인공지능이 한다. 그것이 다르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생

각을 명한다. 이런 말이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인간의 탄생을 알린 데카르트의 각성이 담긴 문장이다. 이제는 그 '나'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생각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 아마도 '신인류'의 탄생이 코앞일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 혹은 생각을 대신해 주는 기계에 의존하는 인간의 시대라고나 할까? 최근 뉴스에는 과제물이나 시험을 인공지능에 맡기는 대학생들 얘기가 화제인데, 그들이 바로 그런 인류의 모습일 것이다. 온갖 대행업자들이 많은데, 생각도 대신해 준다니 얼마나 편리한 기능이겠는가. 이렇게 생각과 존재가 분리된 이 시대의 신인류를 향해서 데카르트라면 무엇이 라고 했을까? 생각은 기계가 하면서 존재만 인간이 소유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기계에 맡기는 '나'는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다. 인공지능에게 요청하는 질문에는 삶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질문은 삶을 뒤흔드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아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돌출하는 질문, 그런 갈증 같은 질문이 아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갈증 같은 질문은 결코 인공지능에게 생각을 맡기지 않는다. 질문부터가 이미 생각인 까닭이다. 세상의 어떤 답변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갈증 같은 질문은 힘이 세다. 질문이 사람을 끌고 간다. 심지어 삶을 뒤집어 놓는다. 문과생 어거스틴이나 이과생 아인슈타인이 그런 질문에 걸려든 것이다. 솜뭉치처럼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평생 사라지지 않는 끈질긴 질문이 있다. 호기심과 궁금증에 잠 못 이루는 질문이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그런 질문에 매달리면 어떨까.

서 석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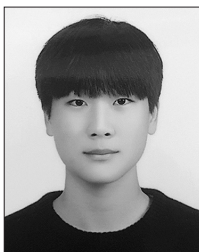
익숙함에 속지 말자

처음 느꼈던 선명한 감정은 익숙함으로 뒤덮이곤 한다. 감정의 자리를 대신한 익숙함은 처음의 감정을 서서히 지워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끝에 다다라서야 다시 처음을 떠올리곤 한다.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익숙함에 흐려진 감정은 다시금 선명해진다.

익숙함은 분명 축복과 같다. 사람은 늘 강렬한 감정만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 때론 지우고 싶은 나쁜 감정이 있기 마련이고 기쁜 감정에 고취되지 않고 이성을 찾아야 할 순간도 있다. 이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진 감정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익숙함은 능숙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히 선한 존재는 없듯이 익숙함 역시 양면성을 지닌다. 익숙함은 처음했던 다짐을 잊게 하고 초심을 당연함으로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라 뒤를 돌아봤을 때 붙들지 못한 다짐과 초심은 후회로 변해 가슴 한편을 무겁게 한다.

지난해 내가 처음 쓴 신문은 설렘의 연속이었다. 내가 쓴 글이 학교 곳곳에 퍼져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나간다는 것이 신기했고,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것 같아 가슴 한편이 뭉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렘보다는 익숙함이 선명해졌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조금은 느슨해졌을지도 모른다. 처음 시작하던 순간의 다짐과 비교해 보면 아쉬운 부분이 남기 때문이다. 물론 조대 신문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며 뒤를 돌아보니 익숙함 속에 가려진 초심과 설렘, 그리고 다짐을 충분히 붙잡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3월의 어느 봄날, 갓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학교에 첫발을 내디디던 순간의 설렘과 다짐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이다. 햇수로 1년이 지난 지금, 그 설렘 대신 익숙함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익숙함에 가려져 잊고 있었던 설렘과 다짐이 후회로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유명한 말처럼 스스로를 경계하고 늘 초심을 되새기길 바란다. 말과 전하며 나의 마지막 서석대를 마친다.

청년의 담(談)

방학, 또 다른 경쟁

방학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방학에 뭐 할 거야?'라고 질문하곤 한다. 이 말은 곧 '방학에 뭐 준비할 거야?'라는 의미가 내포된 경우가 많다.

방학(放學)이란 放(놓을 방), 學(배울 학)으로 학업을 쉰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은 방학은 휴식의 기간이 아니라 누가 자격증을 더 많이 따는지, 취업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의 경쟁의 장이 됐다. 공식적으로는 쉬는 기간이지만 실제로는 취업을 향한 압박으로 인해 쉴 수 없는 기간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방학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데도 영향을 받는다. 단기 어학연수, 토익, 자격증 등 관련 학원과 프로그램이 '방학 시즌'을 노리고 학생 유치에 나선다. 일부 토익학원에서는 방학을 맞아 특강과 단기 강의를 개설하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학 때마다 쏟아지는 상품들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는 셈이다.

취업 시장에서 스펙의 중요성이 줄어드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다고 하지만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항목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시간이 많은 방학 시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각종 SNS와 알고리즘은 '방학 동안 갓생 보내기'와 같은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방학은 '성취'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막중한 부담감에 학생들은 편히 쉬지 못하고 복잡한 나날들을 보낸다. 미래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압박이 지속된다면 우울감과 번아웃이 찾아오기 쉽다. 건강하고 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휴식과 노력 그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균형을 찾으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이 하나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자신만의 동기를 찾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개강이 다가오면 SNS에 '방학 때 나만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방학이 다 끝난 후 후회하지 않게 휴식의 시간은 확실히 갖되 할 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

광주광역시, 2026년 국비 3조 9,497억 원 역대 최대

지난달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광주광역시가 따낸 내년 국비 규모는 3조 9,497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전년 대비 5,639억 원, 무려 16.6%가 늘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1%의 두 배를 훌쩍 넘는 다. 강기정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올 초부터 광주시는 매달 국비 보고회를 열었다. 강 시장과 간부들은 서울을 수시로 오가며 국회·기재부·각 부처에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탰다. 그 결과물이 3조 9,497억 원이다.

예산 곳곳에 ‘AI’가 박혀있다. AI 관련 예산은 총 1,634억 원이다. 그



▲2026년 국비예산 관련 기자회견(출처: 광주광역시)

중 눈에 띄는 건 국가 NPU(신경처리가능망) 컴퓨팅센터 용역비 6억 원. 액수는 작지만, 의미는 크다. 국산 AI 반도체를 실제로 돌려보고 성능을 검증하는 국가급 인프라를

광주에 세운다는 얘기다.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미래컨퍼런스에서 이 센터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두 달 만에 결실을 보았다.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비 31억 4,000만 원은 초등학교부터 산업 현장까지, AI 인재 사다리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 선명하다.

또한, SOC(사회간접자본)을 끈질기게 챙겼는데,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238억 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672억 원으로 광주에서 순천까지 1시간 안에 달한다는 얘기다.

도시철도 2호선엔 100억 원이 추가됐다. 지난 2019년 9월 착공한 뒤 6년 동안 시민들은 울퉁불퉁한 도로, 끊임없는 우회로, 막힌 교통의 불편을 참아왔다. 또한 굴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왔고, 30년 전 설계 도면엔 없던 지하 매설물이 1.8배나 늘어나 있었다. 그 때문에 공사는 계속 미뤄졌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전담팀을 꾸

려 교통량 많은 26개 교차로 3.7km를 정비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2일까지 도로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2019년부터 6년간 접수된 민원 3,962건을 모두 처리했다.

강 시장은 불편을 견딘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카드 특별 환급, 특례 보증,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등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조 9,497억 원. 광주가 손에 쥔 내년 예산이다. 하지만 확보가 전부는 아니다. 제대로 쓰느냐가 관건이다.

NPU 컴퓨팅센터가 실제로 들어서는지, 자율차 200대가 정말 거리를 달리는지, 문화시설 유지가 성사되는지. 계획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수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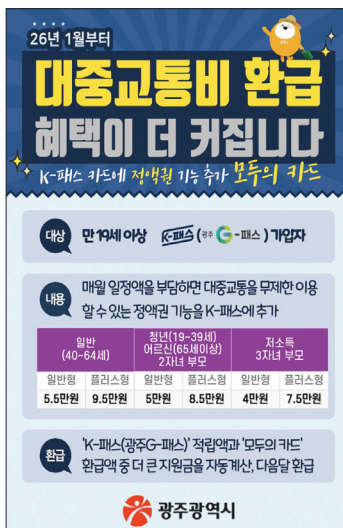
josumin0408@naver.com

광주 ‘지(G)-패스’, 올해부터 환급 혜택 확대

광주광역시의 대중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한다. 어린이·청소년 요금 할인과 성인 환급 제도로 주목받아 온 ‘광주 지(G)-패스’가 올해 1월부터 정부의 정액형 환급제도 ‘모두의 카드’와 연계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환급 체계로 개편된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1일부터 이용자가 별도 신청 없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유리한 환급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광주 지(G)-패스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기존 비율 환급 방식과 이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부 제도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용자는 케이(K)-패스 카드로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 지역 환급 기준 금액은 일



▲광주 지(G) 패스 교통비 환급 포스터 (출처: 광주광역시)

반형 기준 ▲일반(40~64세) 5만 5,000원 ▲청년(19~39세) 및 2자녀 부모 및 어르신(65세 이상) 5만 원

▲3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은 4만 원이다. 플러스형은 최소 7만 5,000원에서 최대 9만 5,000원까지 기준 금액이 설정됐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 요금(환승 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GTX 등 광역 대중교통까지 적용되지만, ▲고속철도(KTX) ▲항공 ▲고속버스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방식은 이용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 해당하는 시민이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4만 원을 쓸 경우, 환급 기준 금액에 미치지 않아 광주 지(G)-패스가 적용돼 이용 금액의 30%를 돌려받는다. 반면 한 달에 8만 원을 이용하면 기준 금액인 5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

만 원은 모두의 카드를 통해 환급 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이 구조를 “대중교통을 적게 이용하면 비율로, 많이 이용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광주 지(G)-패스의 특징은 정부 기준보다 폭넓은 지원이었다. 어린이(6~12세) 무료, 청소년(13~18세) 반값 할인 등 파격적인 요금 정책을 더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확대해 35~39세 시민도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성인의 경우 케이(K)-패스와 연계해 청년 30%, 일반 20%, 어르신 50%, 저소득층 64%까지 환급을 지원해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정책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8,104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 수도 2.4% 늘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급받은 시민은 6만 5,044명으로, 1인당 월 평균 1만 4,030원을 돌려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이용 증가를 넘어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통합 환급 체계를 계기로 시민 체감도 높은 교통 복지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기자

jkjkm0106@naver.com

명절을 보내는 방법의 변화

한 해가 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가족·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차례와 성묘 등의 의례를 지내는 것이 전통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1인가구와 핵가족이 늘어나는 등 가정의 형태가 변화하며 동시에 명절의 전통적인 모습도 변하고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거나, 각자 여행을 떠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묘지 매장 선호 비율이 6.8%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성묘를 가는 가구가 현저히 줄어 들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밝힌 차례를 지내는 비율은 2011년에는 74.7%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48.5%로 감소했다. 차례를 지내도 간소화된 경우가 많아 음식도 시판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전통문화로서

의 모습은 점점 찾기 힘들어졌다.

명절이 되면 시작되는 잔소리와 가사 노동, 가족 간의 갈등 등의 이유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명절 기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명절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누군가에게 명절은 정신·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도 하는 탓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가족의 규모

가 작아지면서 MZ세대는 명절과 일반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통을 중시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변화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변한 것만은 아니다. 정형적이고 의무적이었던 과거 문화를 탈피하고 가족들과의 여행을 즐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다. 명절 준

비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덜어내고 편안하게 명절을 즐기는 모습이다.

명절을 맞아 들뜨는 분위기인 만큼, 사고와 갈등에 대비해 다가올 설을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사설

건학 80주년,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

2026년 병오년 붉은 말(赤馬)의 해에 조선대학교가 건학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1946년 설립된 조선대학교는 구경영진에 의한 사유화의 길고 어두운 길목을 지나 1988년 1.8항쟁을 통해 대학 민주화를 이루었고, 우리나라 대학의 공공성과 대학 자치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대학 구성원의 노력과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우리 대학은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

우리 대학은 규모 면에서 전국 대학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대학알리미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조선대학교의 재학생은 24,986명(정원내 23,124명으로 전국 6위)에 달한다. 인근 전남대 재학생 21,362명(정원내 19,715명)보다 3천여 명 더 많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우리 대학의 지대한 책임과 역할 되새기게 한다.

호남의 시도민 가운데 한 집 건너 조선대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빈말이 전혀 아니다. 조선대가 호남이고, 호남이 조선대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한걸음 더 성장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해 대학 본부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대학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부터 AI활용교육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57만 원(연간 장학금 399만 원, 연평균 등록금 748만 원)에 그치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72.9%에 이르고 있지만, 전임 교원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정년 계열 전임교원은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재정지원과 사학 혁신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

어설 때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 대학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매우 인색하다. 단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족벌비리 사학을 방치하고 있으며, 사학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공영화하려는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과도하게 사립대에 의존해 온 고등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대학을 시·도립대나 국립대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거점국립대 육성사업, 글로벌 대학 지원 사업, 라이즈 사업 등 다양한 지역대학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건학 8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의 역사적 전통을 복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새 옷을 입고, 지역 사회의 혁신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신해야 한다.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주요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를 통해 이루어낸 대학자치를 더욱 숙성시켜야 하며, 공익형 이사를 중심으로 정이사 체제를 재구성한 것에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자치에서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속의를 제도화하며, 상호 존중과 관용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공영형 대학의 전범(典範)이 되어야 한다. 대학 간 연대를 통해 정부가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나서줄 것을 선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조선대학교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 길목에서 70년 역사의 「민주조선」 또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데스크에서

학보사로 존재하며

졸업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마지막 신문을 발행한다. 편집국장으로서 이름을 걸고 발행하는 마지막 호다. 신문을 만드는 일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기사를 쓸 것이며,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건 오히려 쉬운 편이다. 기사 하나를 쓰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 기사를 신문에 담기까지의 품이 더 많이 든다. 가벼운 신문 한 부에는 우리의 끈질긴 고민과 선택의 시간이 쌓여있다.

데스크는 글을 고치는 것보다 수많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을지 그 판단들은 곧 학보사의 방향이 되고, 태도가 된다. 그만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데스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선택의 늪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면 누군가는 공식 언론이 아닌 학보사인 데도 열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학보사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대학은 우리의 공간이며, 누군가는 이 공간에서 기록하는 책임을 해내야 한다. 조대신문을 이끌어 온 선배들도 분명 그랬을 것이다.

학보사의 기사가 세상 밖으로 크게 울려 퍼지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달 대학 내에서 일



박 지 인 편집국장
parkjiin313@naver.com

어나는 일을 기사로 담고, 대학 곳곳에 놓인 신문으로 우리는 언제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역할을 감당하려 끈질기다 못해 과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기사는 단순히 잘 쓰였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기사가 지금 필요한지, 이 주제를 우리가 다뤄도 되는지, 그리고 이 기사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 질문 앞에서 학보사는 늘 불완전했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발행일이 되면 흥분하면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다. 가끔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기사를 쓰면 곧바로 반응이 나타난다. 멀쩡히 비치됐던 신문이 하루 사이에 몽땅 사라진다고나,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 불리해

질 누군가에게 항의 전화를 받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라며 순간 욕하는 마음과 문제가 일어난 이유보다 그 문제를 드러낸 행위가 왜 더 큰 문제처럼 여겨져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그 고민의 끝에선 결국 학보사와 데스크의 존재 이유를 되새길 뿐이다.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사를 없애야 한다면, 기록의 의미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왜 이 기사를 써야만 했는지 스스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강한 언론도, 든든한 보호를 받는 언론도 아니기에 기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꼼꼼히 취재하고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소식지에 그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신문을 읽는 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보기를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해 나갈 것이다.

조대신문의 발행은 계속될 것이며 기자들에게는 마감의 지옥도 반복될 테지만, 그 고통은 적당히 망각하며 더 나은 학보사로 존재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조대신문

조대신문과 함께 나아갈 {73기 기자}를 찾습니다!



조대신문과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사항 #chnews21(인스타그램) #chnews21@daum

모집기간 상시모집

모집대상 2026학년도 기준,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우리 대학 1~4학년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제외)

모집분야 분야: 대학, 사회, 문화

활동 활동: 매달 정기적인 신문 발행(방학기간 제외)

혜택 매달 취재 장학금 및 원고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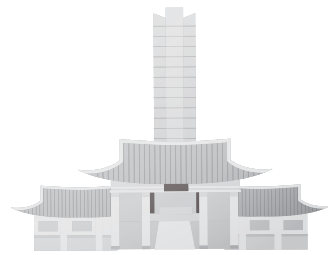
선발과정 선발과정: 신청서 서류 평가 -> 면접평가 (날짜 개별 안내) 후 합격 통보 및 활동안내

신청방법: 조대신문 홈페이지

(<https://www3.chosun.ac.kr/chnews/index.do>) 공지사항

해당 지원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서 chnews21@daum.net으로 제출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힌 진실



“국가 폭력 가해자들을 파묘하
라! 파묘하라! 파묘하라!”

지난해 11월 29일, 5·18기념재단은 국립대전현충원 내 신군부 인물의 안장 실태와 공공 기억의 왜곡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는 '5·18 역사 왜곡 현장 <국립대전현충원> 탐방'을 진행했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오월여머니집 ▲전남대5·18연구소 등 단체와 시민을 비롯해 언론사까지 30여 명이 참여했고, 조대신문도 이들과 함께 역사 왜곡 현장을 눈과 귀에 담았다.

국립대전현충원

1979년 착공해 1985년 준공된 국립대전현충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자리 잡고 있다. 현충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현충탑으로 통하는 현충문이다. 엄중함에 압도되는 현충문 앞에선 방문객들은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참배를 준비한다. 1983년에 세워진 현충문의 현판은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2020년 5·18단체 등의 항의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글씨로 바뀌었다.

대전현충원에는 제5공화국 주요 인사 중 군인 8명, 비군인 7명 등 15명을 포함해 묘소와 유골을 안치한 충혼당까지 총 14만 6443위가 모여져 있다. 1980년 당시 광주로 투입된 20사단을 지휘한 박준병도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박준병은 5·18 관련 혐의가 아닌 12·12 반란 혐의만 다뤄져 무죄를 받았다.

현충원의 펜트하우스, 장군 1묘역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의 저자 정성일 (사)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장군 1묘역으로 이동했다.

일반적으로 묘비 번호는 사망 또는 이장에 따라 안장되는 순서로 부여되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장군 1묘역에서는 규칙을 벗어난 묘를 발견할 수 있다. 1996년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장창국 대장은 1호에, 1986년 안장된 전병수 준장은 장군 1묘역 40호에 안장돼 있다. 1호 묘보다 40호 묘가 10년 이상 먼저 안장된 셈이다. 그 이유는 묘역 조성 당시 가장 뒷줄에 1호부터 39호까지를 대장 전용 묘역으로 정한 것에 있다. 4성장군인 대장들을 안치하기 위해 장성급 묘역을 40호부터 먼저 쓴 것이다. 장창국 대장의 옆인 2호에



▲역사왜곡 현장 탐방 캠페인 포스터 (출처: 5·18기념재단)

는 12·12사태 신군부 핵심 세력이었던 유학성이 안치돼 있다. 유학성은 전두환의 육사 선배로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상고심을 위한 대법원판결 전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지며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

2묘역에서 만난 〈서울의 봄〉

둘레길을 지나 도착한 2묘역에는 영화 <서울의 봄>의 주인공으로, 전두광(황정민 배우)의 반란에 끝까지 맞섰던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정우성 배우)역의 모티브가 된 장태완 장군이 132호에 안장돼 있다. 장태완 장군은 반란을 진압했다는 이유로 고문받았으며, 감옥을 나와서도 보안사령부의 감시를 받았다. 부친은 자식의 소식에 술만 마시다 세상을 떠났고, 장태완 장군의 아들 장성호는 실종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후 장태완 장군은 심근경색 수술과 폐암 수술을 받으며 고생하다 결국 세상을 등졌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힘든 삶을 살다 숨진 장태완 장군의 옆자리를 생전 자신을 도쳤었던 반란군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반란군은 12·12의 숨은 주역인 하나회 출신 정도영이다. 그는 장태완 장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 사망했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 안장됐다. “장태완 장군과 정도영이 나란히 누워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립묘지의 현실”이라는 해설을 들은 프로그램 참가

자들은 분노에 찬 탄식을 흘렸다.

장태완 장군과 함께 반란군을 막으려 힘썼던 김진기 준장도 2묘역 6호에 안장돼 있다. 김진기 준장은 <서울의 봄>에서 김준엽 육군본부 헌병감(김성균 배우) 역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그는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고자 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장태완 장군과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반란군에 끝까지 저항했다고 알려져 있다.

존재의 오류

2도역을 지나고 홍범도 장군의 묘를 마지막으로 답사를 마쳤다. 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잠들어있는 명예 공간이다. 그러나 내란을 주도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안장돼 있다. 이들이 국가의 성역인 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 재판 전 사망 등의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란에 가담했더라도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망하면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대통령 특별 사면의 경우로 안장이 허용되기도 한 이유다.

국가 폭력 가해자들을 파묘하라

학창 시절 한국사 교과서에서 작게 다뤄져 있던 역사 현장을 직접 보니 체감할 수 있었다. 국가 폭력의 가해자인 내란 가담자와 그



▲‘5·18 역사 왜곡 현장 탐방’ 참여자 단체 사진.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정성일 (사)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이 박준병의 묘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장군 1묘역으로 향하는 길

들을 막으며 국가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장군'과 '영웅'의 이름으로 나라히 안치돼 있는 모습은 황당한 광경이었다. 이들이 현충원에 안장되며 동일한 체계에서 기려지는 모습은 '누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훗날 빈 세대에는 이들이 모두 현충원에 묻힌, '같은 영웅'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 등 국가적 범죄를 일으킨 이들이 사면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예외 없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
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등 실
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프로그램 해설을 맡은 정성일 기획홍보팀장은 “2024년에도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것이 안타깝고, (참가자들이) 이곳에 모여주신 것이 정세를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많이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

디지털 비무장지대, 무너진 경계

지난달, 국내 대형 금융회사에서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신사건, 금융 사건, 이젠 어디서 해킹 소식이 나와도 놀랍지 않다. 내 주민번호가, 계좌번호가, 통화 내역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게 현재 우리의 일상이다.

문득 떠오른 건 스티븐 스필버그가 2002년에 만든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 SF 영화로, 개봉 당시엔 그저 화려한 미래 액션물 정도로 관람했지만, 20년도 더 지난 지금 다시 보니 이 영화는 예언서였다.

영화의 배경은 2054년 워싱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인을 잡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가동된다. 세 명의 예언자가 미래를 보고, 경찰은 그들의 예측대로 움직인다. 완벽한 치안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맹점이 있다. 누군가 예언을 조작하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몰릴 수 있다. 주인공 존 앤더튼이 겪는 일이 바로 그거다.

영화 속 사람들은 길만 걸어도 눈동자가 스캔 되고, 쇼핑물에선 광고판이 이름을 불러댄다. 사생활 이고 뭐고 없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기록하고, 분석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손에 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장 보고, 송금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병원 예약까지. 분명 편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내 정보가 어디로 새 나가는지는 모른다. 알 수도 없다. 그냥 믿을 뿐이다.

영화에서 조작된 예언 영상이 사람을 죽이듯이, 가짜로 만들어진 영상 하나가 인생을 망가뜨린다. 한번 퍼지면 끝이다. 지울 수도 없다. SNS는 그걸 순식간에 세상 끝까지 퍼뜨린다.

주인공 앤더튼은 깨닫는다. 자신이 믿었던 완벽한 시스템이 사

실 구멍투성이였다는 것을. '마이내리티 리포트', 즉 소수 의견이 묻혀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경험한다.

해킹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들은 연신 조아리며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한다. 정부도 곤장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플을 설치할 때 이용약관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공짜라고 하면 일단 쓰고 본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야 난리다.

스필버그는 2002년에 이미 경고했다.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 포스터

떻게 되는지. 그때는 그냥 픽션 기반 영화였는데, 지금은 다큐멘터리 같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도서 <성공대화론>

발표를 극복하는 방법

수강 신청 기간, 미리 올라온 강의 계획표에 발표라는 단어를 보면 수강 포기를 고민하곤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발표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 초·중·고 시절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라, 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실수에 대한 걱정과 청중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인 불안을 일으키고,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더 큰 두려움에 닥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발표와 연설에서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책, 데일 카네기의 <성공대화론>을 소개한다. 데일 카네

기는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등의 대화법 저자로 유명하며 책은 '말'의 본질을 찾고 발표와 연설에서 중요한 요소를 풀어내며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자연스러운 말하기의 방법 ▲좋은 연설의 조건 ▲연설의 필요 요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두려움 극복 ▲연설 준비 ▲연설 시 필수 요소 ▲흥미를 끄는 방법 ▲어휘력 향상 등 발표와 연설의 기본 원리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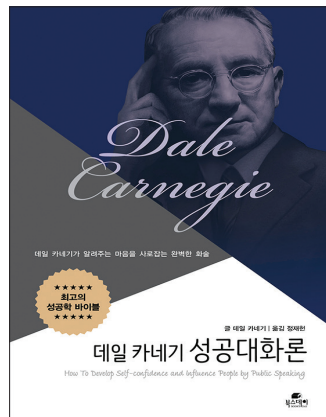
발표할 때, '도입부'에서 긴장하는 경향이 있다. 책에서 '첫 문장부터 청중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라는 대목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호기

심을 자극하는 방법,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 질문으로 시작하는 방법 등과 같은 방법을 설명해 발표의 출발점을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책은 일부분 '초보자'의 입장에서, 원고를 읽으며 발표해도 되는지, 내용을 잊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담겨있어 발표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들이 실전에 바로 적용하기 쉽다.

데일 카네기는 “용감한 척하다 보면 정말로 용감해진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발표할 때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이기도 하다. 두려움이 그대로 표현된

다면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쉽지만, 용기를 가지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긴장은 점차 완화된다. 이는 발표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학 생활 중 발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적 평가와 직결된다. 또한 면접, 회의 등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중 앞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 필요하고, 도전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책은 시대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내용이 전부 정답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말하기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데일 카네기의 <성공대화론>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영화 <트루먼쇼>

진짜의 삶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인 트루먼의 인생은 세트장에서 시작된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인생이 전국에 송출된다. 단 한 명, 주인공인 트루먼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24시간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평범한 인물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출근길에서 문득 몇 가지 이상함을 느낀 트루먼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트루먼은 자신이 세트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세트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어쩌면 우리는 트루먼과 닮아 있을지 모른다. 트루먼은 자신의 삶을 모두가 지켜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비록 트루먼 쇼처럼 인생이 생중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개성을 표출하는 것을 꺼리고 남들의 비난이 무서워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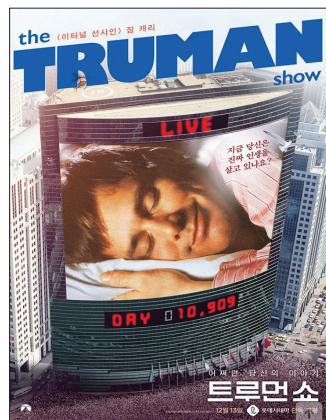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트루먼 쇼와 다른 점은 사람들은 남들의 인생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나 또한 자신의 인생을 살

아가기 바빠 타인에게 엄청난 관심이 없듯, 타인 또한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심을 받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 장애물이 될 순 없다. 따라서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만의 트루먼 쇼를 찍으며 살아간다.

용기를 내서 세트장을 벗어나려 한 트루먼처럼 우리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대에 부응하는 삶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제작진이 만든 트라우마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도록 학습된 트루먼은 설계된 삶이 아닌 자신의 진짜 삶을 찾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떠난다. 가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트루먼처럼 불안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진짜의 세계에 도전할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영화 <트루먼 쇼>를 통해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길 바라며 이 영화를 추천한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영화 <트루먼쇼> 포스터



조대문화상 시 부문 '당선작'

내일로 향하는 사람에게, 어제의 사람이

문혜윤
(특수교육과·4)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 뿐이라고.
하지만 그대, 다시는 나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나는 그대 손을 부서져라 꼭 짊 수도 없는.
내 삶의 끝이 추운 겨울이 아닌 여름이기를

여름의 초입에, 말라 비틀어진 껍데기에서 탈피하는 나비처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지
겨울의 끝자락 말미에, 곧은 향나무 관 안에서 썩지도 못하고 오래토록,
아주 오랫동안 고여서 엄동설한 땅 밑에 잠기는 것인지
내 삶의 끝이 살을 에는 겨울이 아닌 그대 영혼을 데우는 여름이기를

떠나며 받은 사랑과 그리움과 비탄과 애도, 슬픔은 죽음 후에 뱃사공에게 널 샅이 될 것을
아케론 위 출렁이는 나무토막에 몸을 걸치고 비통에 잠겨도
살을 에는 코퀴토스에 비친 과거의 빛나는 영광과 물에 젖은 어두운 그림자도
퀴리플레게톤의 업화가 다가와도 망설이는 것도
레테 강을 지나지만은, 오직 나만은 잊지 못할 추억의 되새김질
불을 타고 곤두박질하는 추억을 기어코 할퀴어 빼앗는 노토스의 손길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한 것은 스틱스에 엮은 눈물진 맹세의 애타는 마음
나의 죽음이 어린 발 뒷꿈치를 얼어붙게 하는 겨울이 아닌 녹아 문드러질 정도로
따스한 노토스의 여름이기를

관에 조아려 우는 자들을 두고 떠나는 여행자의 심정
사슬처럼 휘감긴 죽음에 끌려 떠나는 여행자의 심정
입에 머금은 동전을 억지로 삼키는 토해내지 못하는 여행자의 심정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오르페우스의 심정

어두운 생명을 피해 기어코 나의 삶에서 나를 찾아낸 찬란한 죽음이어.
나의 뜨거운 죽음이 당신의 슬픔이 아닌 추운 여름이기를
나의 온전한 죽음이 날개진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12월의 영원한 낙원이여



조대문화상 시 부문 '가작'

노스텔지어

이예린
(문예창작학과·4)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긴 통로의 끝이 무너지고 있었다

-The End-를 고할 때
화면 저편에선 ... 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모두가 믿는 비밀이 아니었던가

벽 너머론 우주가 흐르고

속이 한 스쿱, 없는 아이스크림
선전을 한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바스라진 끝을 지나왔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주로, 우주로, 우...
리, 인
연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속이 한 스쿱
파먹힌 채 우주를 부유한다

죽을 길이 없었다

시-심사평

올해 투고된 작품들은 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래된 시적 관습에 갇혀 있는 시들도 있고, 시대의 첨단 언어를 구사하는 미래의 시들도 만나게 된다. 저마다의 개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두고 우열을 논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더욱이 아직 오지 않은 시들을 만나게 될 때, 솔직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 너무 오래된 시도 좋지 않지만, 너무 앞서간 시도 고통을 준다.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당선작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후보군에 올라온 학생들은 모두 넷이다. 문혜윤(「내일로 향하는 사람에게, 어제의 사람이」 외), 이예린(「노스텔지어」 외), 신경아(「회고」 외), 한고은(「전두엽의 웅변」 외)의 작품들이 물망에 올랐다. 우선, 모두 개성이 있는 작품들이고 인정할 만한 수준의 필력을 지

니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문혜윤의 「내일로 향하는 사람에게, 어제의 사람이」는 '죽음'과 '여름'의 관계를 모티브로 삼아 변주하는 방식의 시 쓰기를 선보인다. 돌림노래처럼 들리는 반복된 구절에서 '죽음'과 '여름'에 '나'와 '당신'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죽음은 차가운 겨울과 친숙하지만, 화자는 죽음에서 뜨거운 여름을 걸어 올리려 애쓰고 있다. 죽음과 관련된 동양의 신화와 서양의 신화들이 총동원된 이 작품에서 죽음은 결국 상투성을 벗고 '추운 여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문혜윤의 나머지 작품들에서도 일상에서 발견된 사소한 장면에서 상상력을 추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노스텔지어」를 비롯한 이예린의 작품에서도 뛰어난 상상력을 목격할 수 있지만, 언어

들이 너무 앞선다는 생각이 든다. 낯선 언어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지점을 찾기 어려웠다.

반면, 신경아의 「회고」에서는 능숙한 언어들이 시의 소재들을 적절하게 감싸안은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일테면 「광복」과 같은 작품은 차라리 시조에 가깝다고 할 것인데, 그 언어도 낯설지 않다.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지만, 너무 익숙한 과거의 언어는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작품을 선보인 한고은의 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두엽의 웅변」에서 보듯 '되었나', '가보았으려나', '마쳤나', '되어주려나', '생각나려나'로 이어지는 보기 드문 각운의 랩에서 형식에 대한 고민이 느껴진다. 「울프 노트」에서도 「그러니까...」에

서 시작해서 「그러니까...」로 마치는 수미상관의 방식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 고려는 언어의 자기 반성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는 자기 폐쇄적 반복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염원을 염원하기', '도둑거리는 타자소리', 외계어 '가져다졌다', 일본 만화와 일본 영화를 배경으로 하는 은어들의 배치가 그러하다.

과연 이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너무 낯지도 너무 비의적이지도 않은 작품으로 문혜윤의 편을 들어주기로 했다. 나머지 사람들의 작품이 열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 모두들 기대할 만한 내일이 속히 오기를 바랄 뿐이다.

오문석 교수
(국어문학과)

시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글이지만 시를 쓰는 데 드는 품이 적은 건 아니다. 일상의 언어를 시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선 사유의 시간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어쩌면 무엇을 쓸 것인지 시상을 떠올리는 일보다 시상에 적합한 단어를 골라 적절히 배치하여 시다운 형태를 만들고, 단어와 단어가 한 편의 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한편 고유성을 획득하는 시의 언어로 탄생할 수 있도록 언어를 버르는 일이야말로 시 창작의 핵심이다.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절제하며 감각을 환기하는 일 역시 언어의 정련에 달려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능에 시를 한 편 써달라고 하면 몇 초 만에 그를 듯한 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언어를 버리고 정련하는 경험까지 얻을 순 없다. 좀 더 덧붙이면 언어를 다듬는 과정에서 시적 사유도 깊이를 확보하게 마련이다.

올해 시 부문 응모자는 14명이었고, 총 77편이 투고되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시를 읽고 쓰는 일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나치게 계몽적이거나 상투적인 주제에 빠지거나 감상에 치우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응모자들 대부분이 군더더기 없는 시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수준을 보여

주었다.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서 외국어를 삽입하거나 진술 형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언어적 실험도 시도되었다. 아직은 거칠고 생경하지만, 언어의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흔적도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수상작으로 선정하기에는 아쉬운 구석이 많았다.

수상작 후보로 염두에 두고 한참 고민했던 것은 이예린·한고은 학우의 시이다. 균질한 여러 편의 작품에서 그간 거처온 언어에 대한 고민과 단련의 시간을 엿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진지하고 섬세한 시선과 상투성을 벗어난 참신한 감각도 발견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미지보다 시적 자아의 관념이나 감상에 치우치는 장면이나 사유의 치밀함 없이 단상에 불과한 장면들을 지나치기는 어려웠다. 조금 더 다듬으면서 사유의 시간을 갖는다면 수작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도 없지 않다. 인간이 쓰는 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긴 호흡으로 각자의 언어와 사유를 다시 매만지며 지금의 아쉬움을 털어낸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들어보시길 바란다.

장은영 교수 겸 문학평론가
(자유전공학부)



조대문화상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수영이와 바다

나 해 찬

(법학과·3)

망할 봄이 왔다. 대학교들은 개강을 하고 거리에는 봄꽃들이 가득해졌다. 1년간의 휴학을 끝내고 24살에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한 나에게 벚꽃 축제를 같이 볼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학교라는 공간은 대체 어떤 공간인 건지, 누구는 친구를 사귀고, 누구는 애인을 사귀던데, 나는 친구도 하나 없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몰래 혼밥이나 해야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대부분의 메뉴는 컵라면이었고, 가끔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만 먹다 보니 몸무게가 꽤 늘었다. 잘 챙겨 먹지도 못하는데 살은 왜 찌는 건지, 자꾸만 화가 났다. 편의점에서 소시지 하나로 끼니를 때울 때, 옆자리에 마른 사람 하나는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고, 그것도 부족한지 음료수까지 벌컥벌컥 마시는 꼴을 보니 입맛이 다 떨어졌다. 집에 돌아와서 겉옷을 대충 걸어두고 옷을 벗어 짜증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체중계 위에 올라서자, 몸무게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며 숫자가 바쁘게 움직였다. 체중계에서 차분히 내려와 아직 남아있는 전자로 된 숫자를 응시하다가, 이내 발로 뺨하고 차버렸다. 체중계는 잠시동안 허공에 뒹고, 곧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쳤다. 체중계의 뒷부분에서 배터리가 분리되며 거지 같은 숫자가 끝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걸 보고 난 하하. 하며 웃었다.

여름이 가까워지자, 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 모든 불행이 여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매년 여름이 가까워질 때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봄은 곧 여름이 오니가 싫었고 여름은 여름이라 싫었다. 가을과 겨울은 그나마 살만했는데, 매년 찾아오는 봄과 여름에, 난 아주 진저리가 났다.

*

10년 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의 동생 수정이는 여름에 죽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였을까. 난 아직도 수정이가 죽은 이유를 모른다. 수정이는 참 예뻐다.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런 아이였다. 투명하고 맑은, 수정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던 아이가 구름 한 점 없는 여름에 예고도 없이 죽었다. 어쩌면, 그날로 엄마는 미처버린 걸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나와 싸울 때면 수정이가 죽은 게 다 내 탓이라고 했다. 수정이가 죽은 것에 내심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들먹이며 나를 탓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크게 당황했고, 이후엔 화가 났다. 엄마랑 싸우는 날이 점점 늘어갈수록 나는 지칠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말대로 내가 수정이를 죽게 만든 게 아닐까, 나도 모르게 수정이가 없어져서 기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수정이가 죽었는데 내가 감히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어 무서웠다.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아 신앙도 없으면서 신께 빌었다. 나의 교회는 얇은 이불 속이었으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내 죄가 씻겨나가길 간절히도 빌었다.

죄를 씻을 수 없다면 차라리, 수정이 대신 죽을 수 있길 바랐다. 사랑받는 아이였던 수정이가 되살아난다면 엄마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는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다. 푸석한 머리와 눈 아래 다크

서클은 사라질 날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말라갔다. 어쩌다 엄마랑 손이 닿았을 때, 거칠거칠하던 피부가 마치 나무껍질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엄마도 곧 죽는 걸까? 엄마가 화를 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텐다 못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지 한 달이 다 되었다. 엄마에게 화낼 힘도 남지 않은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이 부질없어진 걸까. 갈라진 엄마의 입술이 보였다. 입을 다물 힘도 남지 않은 건지 벌어진 입안이 눈에 들어왔다. 뼈끔뼈끔. 지금 엄마가 있는 곳이 깊은 물 속인 걸까. 엄마, 수영이는 난데 왜 엄마가 물속에 있어. 어서 나와. 거긴 내 자리잖아.

이듬해,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아빠는 엄마와 이혼했다. 수정이가 죽은 이후로 집에 얼굴도 잘 비추지 않던 아빠가 결국 이혼을 선택한 거였다. 아빠는 엄마의 상태를 알면서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다며 대화를 피하기 일쑤였고,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게 쏟아내곤 했다. 중학생이던 나는 사과 하나를 꺾어두고,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는 수정이의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수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는데, 아빠는 벌써 수정이를 잊은 듯했다. 어떨 때는, 수정이가 원래 없던 존재인 양 굴었는데,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수정이의 얘기를 꺼냈다. 수정이도 사과를 참 좋아했는데, 아빠도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니, 아빠는 가만히 사과를 바라보다가 이제 사과를 못 먹겠다고 말하며 방에 들어가셨다. 난 혼자 남아 사과를 먹었다. 아삭아삭 입안에 사과 향이 퍼진다. 수정이는 사과의 단맛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아삭한 식감을 좋아했던 걸까.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들면 사과와 맛이 점점 무뎠다. 수정이도 곧 이렇게 무뎠질까, 눈물의 양만큼 내 안에서 씻겨나갈 수정이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수정이는 이미 죽었는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생이 되어서였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나는 할머니 댁에 버려졌다. 할머니 댁에 처음 왔을 때는 결국 버려졌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런 삶도 꽤 익숙해진 무렵이었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셨지만, 새벽부터 느릿한 걸음으로 장에 나가셨다. 우리의 식사는 나물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이 주된 메뉴였다. 내게 수정이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고,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도 없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혼자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다. 이젠 더 이상 기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이유일까.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수정이가 죽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난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간간이 아빠에게 엄마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엄마는 심리치료가 잘 맞는 듯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들었다. 다크서클도 많이 없어지고 다시 몸에 살이 올랐다고. 아빠는 엄마와 꽤 자주 만나는 듯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닌가. 왜 아빠는 아직도 엄마를 신경 쓸까. 아직 엄마를 사랑하는 걸까. 만약 사랑이 지워진 거라면, 그 자리

를 무엇이 채웠길래. 아빠는 엄마랑 다시 결혼하지도 않았고, 날 자주 보러오지도 않았다. 난 그때부터 죽은 수정이 보다, 남은 내가 더 불쌍하게 느껴졌다.

대학 진학의 꿈은 나와는 먼일 같았고 나는 빨리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생각뿐이었다. 할머니는 내게 밥을 차려주는 것 이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침과 이른 저녁 식사만을 준비해 줄 뿐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보려다가도 그저 묵묵히 쌀밥을 입안에 밀어 넣었다. 할머니께서 날 불쌍히 여기시는 건지 아니면 나와 대화도 섞고 싶지 않은 건지 알고 싶었지만, 그것을 들추는 것이 무서웠다. 야간자율학습을 시작하며 할머니와 밥을 먹는 일이 많이 줄었음에도 난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었다. 내 공간이 생긴다면 그나마 답답한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았다.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공간도 내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내겐 마음을 맡길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객관적으로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을뿐더러 또래 친구들이 관심을 두는 유행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모두 각자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 난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슬프고 힘든 감정은 내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진짜 불행한 사람은 여기서나 혼자여야만 했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꺼낸 적 없지만, 일단 내게는 그게 옳은 일이었고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같이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난 항상 편한 듯 불행했다.

친구들은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친구나 연인 따위와 시간을 보내며 불평 같지도 않은 불평을 습관처럼 늘어놓곤 했다. 내 불행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슬퍼하고, 울고, 난 그 모습을 견뎌줄 수가 없었다. 애초에, 공감할 수 없었으니까. 그들은 당연하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갈 예정이었다. 대학, 그곳이 뭐라고 다들 하나같이 모여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대학에 가고픈 마음도, 그걸 간절히 바라는 가족도 하나 없는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걸까. 내겐 행복한 미래가 없었다. 가장 불행한 곳에 빠져있는 내가 이곳을 헤엄쳐나갈 방법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삶에 회의를 느낄 때쯤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는 내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긴 시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런 엄마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차마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했다. 그건 명백히 거짓말일 테니까.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원치 않는 용서를 하게 될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엄마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내 깊은 곳에 남아 날 아프게 했다. 그 상처가 사라지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엄마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의 부재에 외로움을 느끼던 나는, 엄마를 완벽히 밀어낼 수도 없었다.

엄마는 전화를 끊기 전, 다시 연락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았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죄책감을 덜기 위해 한 말인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다. 전화를 끝낸 지 3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내가 사는 곳까지 차를 끌고 왔다. 분명 엄마는 면허가 없었는데, 다시 보는 엄마는 차도 운전할 줄 알았고, 보기 좋게 살이 올라와 있었다. 엄마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도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았다.

엄마는 내게 또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지? 바쁘네 엄마가 시간 뺏는 거 아니야? 라고 물길래 어차피 난 대학 안 갈 거라 괜찮아, 라고 덤덤히 말했다. 그 말에 엄마는 대학을 왜 안 가, 라며 돈이 걱정이라면 엄마가 해결해 준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꽤 다정한 부모와 같은 말을 들으니 당장이라도 뱃속의 음식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엄마라는 존재의 공백이 익숙해진 지 한참이다.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아무리 채워보려 애써도, 더부룩함 때문에 전부 게워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엄마와 몇 번이나 만남을 이어갔다. 엄마는 내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다정하게 날 대했다.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옷을 사주고 나 혼자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엄마는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귀티가 나는 것 같았다. 내가 없는 동안 엄마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빠는 내게 용돈을 보내주고는 아껴 쓰라는 말을 꼭 덧붙였었는데, 엄마는 내게 또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까지 했다. 엄마의 말에 나는 꽤 기뻐한 것 같다. 나는 여전히 엄마에게 짐 덩이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가 아직 날 사랑한다는 생각에 기뻐다.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못했음에도, 또래 애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곤 했다. 그게 현실이 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음을 멀지 않아 알게 됐다. 엄마는 나와 5번째 만남에서 남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아빠 이외의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그 말을 듣고, 난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슬프지 않았었는데 말이다. 엄마는 그런 내 손을 붙잡으며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따위를 열거하던 엄마는 며칠 뒤 그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나를 불렀다.

점심시간, 난 학교 화장실에서 당일 먹은 것을 모두 게워 냈다. 저녁에 있을 그 불편한 만남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고, 아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궁금하다가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의 난 혼란 그 자체였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이었지만 난 소리를 참고 울었다. 엄마가 내 우는 소리를 들을까 봐 소리를 참는 것이 내 오랜 습관이였다.

저녁이 되자 퐁퐁 부은 내 눈가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엄마와 그 남자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았다. 그의 비싼 옷과 시계가 반짝였고 흰철한 키가

눈에 띄었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아도 내 절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커지는 듯했다. 엄마는 내게 이제라도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그 말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엄마와 함께하는 몇 개월 동안 엄마의 몸에는 자잘한 피멍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걸 알면서, 엄마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아빠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도 잠시뿐이었고, 나아진 건 단 하나도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여름, 엄마는 또 한 번의 결혼을 했고, 새로운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에겐 붙여진 수정이라는 이름을 듣고, 난 엄마와의 연을 끊었다. 엄마는 다 나은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낳는 것이 가능한 걸까. 이걸 병이 아닐 텐데, 정말 치료가 가능한 걸까. 엄마와 나는 여전했다. 지울 수 없는 수정이의 죽음을 영원히 안고 살 것이 분명했다. 적어도 엄마의 곁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수정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난 좀 외롭게 살고 싶었다. 적어도 엄마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즈음 내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심리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공부와는 친해지려야 친해질 수가 없었는데, 하고 싶은 게 생기니 성적은 쭉쭉 올랐다.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고 싶다는… 일종의 오기였다.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내 마음까지. 내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투성이었다. 이 마음의 해답을 얻으면 나도 부모님도 행복에 가까워질 것 같았는데, 막상 대학에 와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아무리 이론을 배워봐도 현실은 너무나 복잡해서,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난 대학에 다니며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고 주말에는 항상 알바를 했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모아도 바닥을 금방 보였다. 맞지도 않는 학과와 불편한 사람들. 여름이 올 때마다 거대한 불안감이 날 삼켜오는데 실상가상으로 돈까지 부족했다. 정말, 희망이라는 것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이었다. 온통 불행으로 가득 찬 이 바다는 끝을 모르겠어서, 난 여기에 빠져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이고 더 했다. 수정이가 죽었을 때도 이만큼 죽고 싶지는 않았는데, 고작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커졌다. 수정아, 난 언제 이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내가 죽으면, 그뻔 날 용서해 줄래? 내 질문에 수정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정이는 죽었으니까, 그제 당연했다. 그걸 알면서도, 수정이가 대답해 주기를 바랐다. 수정이에게 용서 받는다면 나도 이 불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

암울한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던 22살의 여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찾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게 그제야 후회가 됐다. 할머니가 날 찾지 않는 것을 보고 내심 기뻐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할머니는, 밥을 먹는 시간 이외에는 나물을 다듬어 장에 내다 팔곤 했다. 난 그 나물을 다듬는 것조차 도와드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내게 유산을 남겼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자잘한 금액을 몇 번이고 입금하며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할머니가 내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인 걸까? 왜 한 번도 밖으로 보여준 적 없었던 걸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결말만을 낳는 것일까.

대체 왜 여름은 내게 불행만을 안겨주는 걸까. 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1년간의 휴학기에 많은 생각을 했다. 수정이가 죽은 이후로, 여름의 난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난 그렇게 결론지었다.

*

다시 대학교 3학년의 여름, 나는 바다를 만났다. 바다와 처음 마주친 건 도서관이었다. 바다

의 컫바퀴에는 치렁치렁한 액세서리가 여럿 매달려있었고, 옷의 검은 바탕에는 요란한 그림이 있었다. 등 뒤로는 기타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었다. 그렇게 도서관 입구를 지나며 바다를 처음 보았고, 우연히 그의 옆자리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 딱히 바다는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바쁘게 검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잤다. 그 모습을 보며, 애는 왜 도서관에 왔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다. 도서관의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나는 집에 가기 위해 자리를 정리했다. 지금까지 곤히 잠에 빠진 누군가를 깨우는 일은, 내가 아니라 마감을 맡은 사서가 할 일이었지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난 그를 흔들어 깨웠다.

저기요, 하고 그의 어깨를 흔드니, 바다는 금세 깨어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아무 대답도 안 하길래, 난 다시 그에게 마감 시간 다 됐어요. 나가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바다는 갈 곳이 없는데요,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바다는 염색을 한 듯 밝은 갈색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고, 눈동자는 맑은 호수 같았다. 바다예요, 내 이름. 바다가 그 말을 했을 때 사서가 다가와 마감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얼굴이 달아올라서, 난 황급히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저녁 늦은 시간, 나는 가로등을 따라 걸었고 바다는 나를 따라 걸었다. 벌써 집에 가요? 라는 바다의 물음에 나는 네. 가야죠,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렇게 조금 걷다가, 바다의 발걸음 소리가 어느새 멈추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가만히 가로등 아래서 있던 바다가 날 보고 미소 짓는 게 보였다. 바다는 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에 난, 발을 옮겨 바다 앞에 섰다. 그 순간, 나는 바다의 푸른 눈동자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바다는, 기타를 참 좋아했다. 언제, 어디서 만났든 꼭 기타를 가지고 다녔다. 동네 친구들과 작은 밴드를 하는 것 같긴 했는데, 연습 빈도가 많지는 않았다. 나와 만나는 날은 연습이 없는 날뿐이었는데, 바다가 항상 기타를 들고나오길래 그건 왜 맨날 들고 다니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바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뭘지 항상 보여주고 싶어서, 라고 했다. 그제 어떤 마음인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바다의 연주를 듣는 게 좋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바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그가 연주해 주는 기타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곤 했다. 난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그럴 때마다 바다는 가만히 웃었다. 노래를 아주 못하는 나였지만, 바다는 그런 나를 말리지도,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제 여름의 기억 중, 가장 날 행복하게 하는 기억이었다. 외롭게 살고자 마음먹은 것이 무색하게도 난 바다와 함께하는 게 좋았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올 때까지 난 꼭 바다와 함께였다. 바다와 나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가족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 바다도 나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게 유일한 공통점이었다. 바다는, 엄마와 둘이 산다고 했다.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집을 떠난 이후로, 바다의 엄마는 그를 집착처럼 대했다고. 바다는 아빠와 똑 닮은 외모를 가져서 그의 푸른 눈동자를 엄마가 아주 싫어한다고 전해 들었다. 그 말을 듣자, 그에게서 웬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고, 나와 반대되는 그의 태도는 호기심을 자극했다. 바다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물어봐도 그는 덤덤하게 대답할 뿐,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말 닳고 싶은 사람이었다. 가끔 외로워 보이는 눈을 했지만 그제 누구 때문인지는 어렵짐작할 뿐이었다.

바다와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쯤 우린 동

거를 시작했다. 바다는 짐이 별로 없었다. 가방 두 개에 다 들어갈 정도의 짐을 가지고 내가 살던 집에 들어왔다. 바다는 항상, 도무지 계절을 가늠할 수 없는 패션으로 차려입었다. 민소매에 가죽 재킷 같은 복장이 대부분이었으니, 바다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 것 같은 복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다. 바다는 코를 골거나 이를 갈지도 않았고, 설거지 당번도 잘 지켰다. 밴드 연습 때문에 달에 서너 번쯤 늦게 들어오는 것 빼고는 신경 쓸 것은 딱히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다는 물고기를 키우자고 했다. 금붕어도 아니고, 바다가 물고기라고 말하는 게 웃겨서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웃었다.

다음날, 대형마트에서 파는 금붕어 한 마리를 집에 들어왔다. 금색 비늘을 가진 작은 금붕어에게 난 물고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다는 그 이름을 씩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난 그 이름이 좋았다. 물고기는 금붕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금붕어가 물고기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금붕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바다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바다와 함께하는 것은, 그 누구와 함께할 때보다도 편했다. 바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수정이가 죽은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난 분명 살아있는데 죽은 것보다 더 외롭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죽은 수정이를 부러워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죽은 수정이가 내게 벌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니, 바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나를 위로했다. 그렇게 바다는 내게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내 여름은 점점 바다가 되었다. 나를 깊은 물 속에 가두려는 소금호수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인 바다가 내 여름을 채웠다.

시간이 지나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 바다도 평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바다는 항상 밤늦은 시간까지 곡을 쓰곤 했는데, 창피하다면서 내게 그 곡을 들려준 적은 없었다. 바다는 작곡가가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먹고살기 위해 본인과 타협하기로 한 걸까.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그 질문은 끝내 하지 못했다.

겨울이 되고, 바다는 내 곁을 떠났다. 바다는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건네며 애써 웃었다. 그러면서, 이제 불행이 오는 계절이 여름이 아닐까 바란다고 했다. 그 말에 화가 나서 그림이젠 내 불행이 겨울이 되길 바라냐고 바다를 몰아세우니, 바다는 눈가가 축축해진 채로 날 봤다. 그리고는 널 불행하게 하는 계절은 없어 수영아, 라고 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불행은 언제나 여름이었고, 매년 다가오는 여름이 될 때면 불안함이 물밀듯 내게 찾아왔는데 말이다. 바다는 짐이 별로 없었다. 이곳에 올 때와 똑같은 양의 짐을 챙겨서 나갔다. 얼마 되지 않는 짐이 빠져나갔을 뿐인데도, 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2월에 열린 졸업식에 아빠가 찾아왔다. 아빠는 꽃다발을 들고, 내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겨울 동안 마음이 추워서인지 몸이 추워서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을 한참 쏟아냈는데, 아빠를 보자 오랜만에 웃었다. 아빠를 향한 원망이 조금 무뎈진 건지 괜한 반가움이 들었다. 아빠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아빠는 내게 수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빠도 아직 수정이가 그림다고, 아직도 수정이가 말간 웃음을 띠며 뛰어오는 꿈을 꾸다고 했다. 수정이를 잊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마음속 깊은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슬픔의 파도에 휩쓸리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수영아. 수정이가 죽은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아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서글퍼서, 한

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와 난 수정이를 보러 갔다. 수정이는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납골당에 있었다. 뺨가루만 남은 수정이를 수정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수정이는 천국에 갔을까. 난 손에 쥔 사과를 만지작대다가 느지막이 껍질을 깎았다. 아빠, 수정이가 보고 싶어요. 내 말에 아빠는 나도.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우리에게 누가 인간은 언젠가 죽는 것이라며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린 그저 놓아주는 법을 늦게 알았을 뿐이다. 우린 수정이에게 용서받으려 애쓸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수정이는 우릴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까지도 모두 앗아가는 것이니까.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수정이도 나도, 그 망할 계절들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새아기를 개명시킨 것은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난 뒤였다. 아무리 수정이가 그리워도 그 아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은 죽은 수정이에게도, 새로운 아이에게도 몫을 짓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엄마를 용서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난 아직 살아있는 몸이니 그래도 되는 거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정리되면 다시 엄마와 밥을 먹게 되겠지만, 그것은 보장된 미래가 아닌, 나의 성장에 대한 증명일 것이다. 우린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니, 난 언젠가 엄마를 용서하고 싶다. 그러니 성장을 끝마칠 때까지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내 마음을 엄마도 이젠 알아주길.

가끔 바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항상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를 남겼는데, 거기에 보고 싶다고 대답해도 미안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바다에게 난 어떤 존재길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남길 만큼 걱정되지만 다시 만날 수는 없는 사람인 걸까. 바다와 함께 키운 금붕어는 아직 잘 헤엄치는데, 바다는 어디로 간 걸까. 바다가 만든 사랑 노래가 거리에서 들려오고 나서야 우리가 했던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금붕어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나는 깊은 바다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여름 때문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온 뒤에야 난 바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가 수정이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우고 싶어 했던 것처럼 나도 바다와 비슷한 누군가로 곁을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바다는 분명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놓아주는 것까지 책임인 게 아닐까. 진정한 사랑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상대방과 새로운 누군가에 대한 예의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린 그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한다.

수영이와 바다. 난 이 이름이 좋다. 우리의 성씨가 무엇이든 우리가 수영이와 바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사랑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바다가 피우던 담배가 마셨는지 예뻐졌는지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지만, 길가를 거닐며 그 때까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바다를 떠올리곤 한다. 바다가 가끔 보이던 그 외로운 눈빛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린 진정 끝을 맞이했다. 사랑의 끝은 관계가 정리되었을 때가 아니라 각자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고, 난 더 이상 내가 만 들어낸 불행에 갇혀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여름이 찾아오기를, 그때는 나도 그 여름을 즐길 수 있기를, 난 간절히 바란다.



조대문화상 단편소설 부문 '가작'

아무도 중사에게 편지하지 않았다

김민준
(문예창작학과·3)

늘 준민을 지켜보면서, 저런 유형의 인간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처음엔 그가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다. 저러다 말겠지 싶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그래왔다. 한편으로는 그의 끈기와 각오가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준민은 김 중사 옆에 서서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었다. 김 중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까 중대장님과 얘기 다 끝냈습니다. 가지고 있던 휴가는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김 중사의 눈은 여전히 휴대폰에 쏠려 있었다. 그의 동공에 휴대폰 화면 일부가 비쳤다. 준민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 나갔다.

“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저는 휴가보다 삼으로 요리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역 전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15일을 강조한 의도에는 어서 빨리 청산해 달라는 공중이가 담겨 있었다. 김 중사도 이를 눈치챈지 고개를 돌려 준민을 노려보았다.

“도대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내가 휴가 반납하라고 부탁했어? 남들은 하루라도 더 모으려고 안달인데 너는 왜 그러는 거니?”

준민은 입을 벌리고 눈알을 굴려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좌송하다고 말했다. 김 중사는 질린다는 듯이 말했다.

“좌송할 짓을 왜 하는 거야?”

준민은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떨궜다. 김 중사는 다시 휴대폰에 집중했다.

김 중사가 퇴근한다고 말하며 뒷문으로 향했다. 준민도 따라갔다. 그는 혼났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생기발랄하게 푹짜거렸다. “김 중사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 중사는 뭐라 말했지만, 문이 광당하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소리는 메아리 되어 한동안 날아다녔고 그는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후 나는 그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 퇴근한 김 중사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예상대로 행주를 집어 들어 음식 건더기로 얼룩진 배식대를 닦았다. 그런 다음 수시로 밟아 바닥에 늘어붙어 겹처럼 변해버린 밥알을 쇠 긁개로 박박 긁었다. 그는 일하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았다. 부르는 사람은 없었으나, 집착에 빠진 사람처럼 문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나를 바라본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는 김 중사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묵음 바쳐 송배하는 사람은 사실 모두가 혐오하고 피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과연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내가 취사병으로 처음 투입되었을 때, 선임 두명과 준민이 있었다. 선임들은 일부터 쟁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에 불만이 한가득했다. 그들과 나누었던 첫 마디는 김 중사를 조심하라는 경고였다. 그들을 만나기 전, 나는 김 중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 김 중사에 대한 첫인상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기에 그들의 경고는 의아스러웠다. 나는 일단 알겠다고 답한 후, 동기인 준민과 단둘이 남는 상황일 때 말하기로 했다. 준민은 나보다 2개월 먼저 입대했다. 뽀빠머리에 검은색 뽀테 안경을 쓴 준민은 작은

키 덕분에 옛돼 보여 귀여운 인상을 안겨주었다. 나이는 스물한 살로 나보다 두 살 어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 지내보자며 악수했다. 곧이어 나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선임들이 김 중사님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아? 상담할 때 얘기를 나누어 보니 관찮으신 분 같던데.”

“나도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임들이 김 중사님한테 많이 혼나서 그런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김 중사님이 선임들한테 국자를 던지며 소리 지르셨어. 콩나물국이 너무 차가워서 사람들이 중대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조사해 보니 찬물에 소금이란 콩나물만 넣고 끝냈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선임들이 잘못했지만, 김 중사님이 억지로 화내실 때도 있어. 근데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저번 주에 스크램블을 했는데, 삼으로 술을 굽는 게 무서워서 망설이다가 다 태워버렸어. 결국엔 먹물 먹은 먹구름처럼 되어 버렸지. 나는 울먹거렸는데 선임들은 그냥 내자고 했어. 김 중사님은 출근하시자마자 바로 혼내셨지. 그런데 크게 혼나지는 않았고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좋게 끝내 주셨어. 뭐 혹시 모르지. 나도 선임들처럼 김 중사님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준민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동그렇게 뜬 단발머리를 시작으로 외모 전체가 동그런 김 중사님이 화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군 생활을 끝내고 싶었다. 나는 준민한테 얘기해줘서 고맙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준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취사반에 투입된 지 2주 정도 흘렀다. 처음 배우는 요리라서 어렵기보단 신기하고 새로웠다. 다만 주말 없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새벽 5시, 손바닥으로 내 팔을 흔들어 깨우는 불침번을 항상 원망했다. 그러나 곧이어 원망의 대상은 여자 친구로 바뀌어졌다. 단순히 그녀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려고 취사병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눈을 뜨려 해도 사방이 까마득하게 암흑이라 무거운 눈꺼풀을 감게 놔뒀다. 검은 바탕에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불을 개기 시작했다. 손은 제멋대로 움직였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상상했다. 반듯하게 갠 이불과 베개를 머리맡 쪽으로 두고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했다. 아직 9월이지만 생활관 내부는 제법 쌀쌀했다. 바지를 벗으려니 맨살 위로 찬 기운이 달라붙었다. 나는 팬티만 입은 채 가만히 경직되었다. 서둘러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쓱쓱 문질러 열을 올렸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되자, 취사복으로 갈아입었다. 눈도 어느새 힘들이지 않고 떠지며 주변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들만 버티면 하루의 50퍼센트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었다.

단체급식은 항상 보존식을 담아야 한다. 만약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로 된 각각의 동그런 용기마다 끼니에 먹는 모든 음식을 한 입씩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담아 놓으면 된다. 다닥다닥 붙여놓은 용기는 아기의 식판 같아 보였다. 그리고 냉동실에 넣으면 마무리된다. 하루 세 번, 끼니마다 해야 해서 조금 귀찮지만, 까먹고 안

한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보존식을 담지 않았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도중, 준민의 표정은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냉장고 주변을 맴돌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준민아 무슨 걱정 있어?”

준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보존식을 깜빡했어.”

웃음기 하나 없는 차가운 대답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이다.

“그러면 일단 선임들한테 얘기해 보는 건 어때? 선임들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선임들은 혹시라도 보존식을 까먹었으면 김 중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다음 끼니에 두 번 담으라고 알려줬었어. 나도 사실 그러려고 했는데 내일 검열관이 온다고 들었거든. 내일 아침 메뉴를 담으면 일이 커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거짓말해서 들통나기 전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도 보존식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 내 잘못도 있어.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혼나는 게 낫지 않아?”

그는 피식대며 김 중사님한테 보고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걸었다. 준민은 김 중사님한테 현재 상황을 자초지종 설명했다. 우리는 조마조마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거기에 째깍 말고 기다리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가 끊어졌다.

“김 중사님이 국자 던지실까?”

준민이 말했다.

“뜨거운 물도 뿌리실 것 같은데.”

우리는 각자 어떤 방식으로 혼날지 상상해 보았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꽤 흘렀지만 김 중사님은 오시지 않았다. 집이 꽤 머신 모양이다. 나는 살짝 좌송했다. 그때 광, 하며 심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내 어깨는 힘차게 들쭉거렸고 진정할 틈 없이 발자국이 저벅거리며 다가왔다. 자세히 들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김 중사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 사고몽치들아!”

아래가 축 늘어진 비닐봉지를 보여주며 얼른 보존식 용기와 젓가락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김 중사님은 얼른 끝내고 퇴근하자며 봉지 속에서도 시락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오늘 석식으로 만들었던 음식들이 알록달록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보존식 용기를 가지러 온 준민은 조화로운 음식에 넋을 잃었다. 김 중사님은 빨리 오기나 하라고 외쳤다. 그는 주춤거리더니 그만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 덕분에 보존식 용기들은 땡그랑, 날카로운 소음을 내지르며 사방으로 굴러갔다.

“야! 너 빨리 주워서 다시 행구고 용기 새로 꺼내와!”

김 중사님의 욕박지르는 소리에 그는 벌떡 일어나 허둥대며 용기들을 주웠다. 나도 같이 거들었다. 용기를 다 줌과 나서 그는 싱크대에 놓고 다시 새로운 용기를 가져다 뒀다. 나는 젓가락을 이용해 그가 가져온 용기마다 음식들을 담기 시작했다. 치즈로 덮여있는 닭갈비는 내가 저녁에 만든 것보다 훨씬 먹음직스러웠다. 요리

를 만들기 전에 일단 집에 재료가 있었는지부터 궁금했다. 없었더라면 애꿎은 지출을 가했을 것이다.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간 볼 정도의 양만 조리하면 무슨 기본일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보람 없는 짓 중 하나가 아닐까?

준민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요리와 김 중사님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는 와중에 김 중사님은 생색 한번 내지 않으셨다. 음식을 다 담은 후, 뚜껑을 닫고 냉동실에 넣었다. 일과가 끝이 났다. 나와 준민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김 중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훈계했다.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그가 돌아서려고 할 때, 준민은 다급하게 불려세웠다.

“김 중사님.”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어서 말했다.

“아까 정말 우렁각시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은혜 전역할 때까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홍조로 붉게 번진 뺨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나를 살짝 응시했다. 나도 서둘러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중사님은 미소를 띠며 제발 그러길 바라다며 퇴근했다. 취사장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다. 준민의 홍조는 이마와 턱까지 번졌고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준민과 싸웠냐고 물었다. 그들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나 싶었다. 나는 준민과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도우며 성실히 업무를 하고 있었다. 단지 그와 같이 애길 나누는 시간이 없었을 뿐이었다. 한 시간 정도 부여받는 쉬는 시간에 그는 창고 관리를 했다. 선임선출이 잘 되었는지, 유통기한과 개수가 맞는지 표를 수정했다. 퇴근 후에도 그는 조리실이 조금만 더러워 보이면 혼자서 바닥 청소를 했다. 개인정비시간이 다 끝나서야 생활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어쩌다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대화 주제는 언제나 김 중사님이었다. 준민은 취사병과 취사장을 신경 써주는 급양관이라는 보직이 얼마나 어려운지부터 해서 김 중사님 대한 존경을 과시했다. 똑같은 소리를 쉬지 않고 반복하니 나는 슬슬 지겨워졌다. 그러나 경청해서 들어주었다. 괜히 사이가 멀어지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였다. 어쨌든 오랫동안 함께 일할 전우고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 김 중사님의 질책에 연어맞는다. 질책하는 내용은 늘 새롭지만, 플롯의 배열은 거의 변화가 없어 조금만 지켜보면 금방 적응되어 무덤덤해진다.

“냉장고에서 토마토소스 좀 꺼내와라.”

김 중사님이 준민한테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준민은 못 알아들어 다시 물었다.

“토마토소스 가져오라고.”

“아, 혹시 스파게티 소스 말하시는 겁니까?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김 중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준민은 캔과 비닐 포장된 소스 무더기를 품에 안고 입으로도 물며 위태롭게 걸어왔다. 그는 ‘읍’ 소리를 내며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야, 너 생각 안 해? 소스가 지금 40개 정도 있는데 소쿠리 들고 가면 한꺼번에 들고 올 수 있

잖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시간 없는데!”

준민이 입을 열려는 순간 물고 있던 소스가 쥘 쥘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가 초인이야?! 저걸 다 들 수 있게? 지금 봐 봐! 다 떨어뜨리고 있잖아! 너는 항상 그래.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자주 번거롭게 만든다고!”

“죄송합니다… 빨리 들고 오겠습니다.”

준민은 소스를 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소쿠리를 들고 냉장고로 향했다. 김 중사님은 얼굴을 구겨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일하고 고함치는 일이 잦아졌다.

심한 모진 말에도 준민의 가치관은 조금도 금이 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점심 메뉴로 달걀 프라이가 나왔다. 손으로 직접 부쳐야 했기에 조금 이른 시간에 준비하고 있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는 식용유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 너무 많이 두르면 보글거리는 기름방울들이 폭죽처럼 사방으로 터지기 때문이다.

준민은 식용유의 양을 조절하는 데 실패했다. 달걀의 폭발음이 위협적으로 들렸다. 안타깝게도 폭죽의 잔해는 김 중사님의 손목을 정확히 명중했다. 김 중사님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세계 문질렀다. 그리고 정말로 죽일듯한 눈빛으로 준민을 쏘아보았다. 준민은 곧바로 불을 줄이고 폭발을 멈추기 위해 애썼다.

“죄송합니다… 살면서 달걀 프라이는 처음 하는 거라서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자랐어! 달걀 프라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김 중사님은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이 파갑다며 투덜거렸다. 준민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보다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손을 부르르 떨며 식용유가 밖으로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두르며, 입구 쪽에 묻은 여분의 기름을 확실히 털어놓았다. 하지만 팬 가장자리에 애처롭게 매달린 기름방울이 밖으로 흘러 떨어지면서 버너에 닿았다.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해?! 설거짓거리가 또 늘어났잖아!”

김 중사님의 날카로운 곡성에도 준민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김 중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빨리 부치거나 하라고 하셨다. 다시 달걀을 깨뜨리고 노른자를 터트렸다. 기름이 보글대는 소리와 노릇한 냄새가 침묵을 대신해 주었다. 그때 김 중사님은 준민을 불렀다.

“너는 나한테 계속 혼나면 무슨 생각이 드니?”

준민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말했다.

“예전에 김 중사님이 보존식 도와주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후로 김 중사님한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내실 때마다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정말 화나는 일이 생겨도 김 중사님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엔 웃음을 덧붙였다. 김 중사님은 재밌다고 말하셨다.

“그 마음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보마.”

그때부터 김 중사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닥에 쌀알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취사병들을 모두 집합시켰고 끝없는 잔소리를 펼쳐 놓았다. 그는 쉬는 시간을 계속 뺏기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압박했다. 하루는 휴게실에서 선임들과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준민은 창고에서 재고 확인 좀 하겠다고 했다. 나는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냥 쉬고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다. 나와 선임들은 반사적으로 상체를 뻗뻗하게 세웠다. 분명 닫혀있었던 문이 조금씩 열리더니 끼익하는 불길한 잡음이 길게 늘어지면서 활짝 열렸다. 김 중사님이 서 있었다. 그 뒤에 준민도 있었다.



“창고 표가 아주 엉망이야! 다 지을 거니까 서로 써!” 김 중사님이 말했다. 그리고 후임 교육도 똑바로 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등을 돌렸다. 김 중사님이 가고 나서 준민은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선임들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 중사님이 들어와서 확인하셨습니다. 열심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너 잘못은 없어. 저 사람이 그냥 예민한 거야. 처음에만 잘해주고 나중에는 저런 식으로 나온 다니까. 사람이 너무 짝 막혀있어.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왜 저렇게 화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니까. 항상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기 저기 떠벌리는데, 본인이 잘못된 것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지.”

“내 선임들은 전역할 때 김 중사한테 인사도 안 했어. 다시는 김 중사를 안 볼 수 있어서 좋아한다니까. 아마 지금까지 편지 한 장도 못 받았을걸. 나도 전역할 때 되면 피해 다니려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나와 준민한테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다. 전역할 때 고마웠다는 등의 인사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그들의 이등병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지 못할 만큼 순수하고 밝게 웃고 있었다. 아직은 세상이 순수하다고 믿는 젊은이의 얼굴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무슨 시련을 겪었길래 이렇게 의욕이 없는 폐인처럼 되었을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때문일까? 그렇다면 나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틀린 법이 없으니 말이다.

퇴근하려고 할 때, 준민이 냉동 음식을 먹자고 했다. 나는 그와 좀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했다. 음식 세팅을 끝내고 먹기 시작했다. 준민은 취사병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다.

“뭘, 아직은 새롭고 재밌어. 주말이 없는 거랑 새벽에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 너는 어때?”

“나도 일이 새롭고 재밌어. 지금 상황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질리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새로 질문을 해 보았다.

“아까 김 중사님한테 많이 혼난 거 같은데 괜찮아?”

“김 중사님이 혼내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혼날수록 더 노력해야지. 보존식도 도와주셨는데 자주 실망하게 해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도 해.”

“나는 그래도 김 중사님이 너무 막 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다시 힘내서 일할 수 있지. 오죽하면 선임들이 저렇게까지 주의를 주겠어?”

“난 그냥 보존식 도와주셨을 때가 너무 감사해. 그런 도움을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선임들도 분명 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 거야. 나는 힘들어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리고 김 중사님한테 칭찬받는 일이 꽤 즐겁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김 중사님을 떠올리면 벌떡 일어나지는 게 신기해.”

도움 한번 받은 걸로 상대방을 늘 같은 마음으로 흠모하길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는 자기 영혼만 갈아먹을 뿐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봐 준다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온전히 알아봐 주기란 불가능하다. 괜히 엉뚱한 기대를 품다가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실망만 안길 수 있다. 실망은 점점 상대방을 원망하고 증오하다 결국 무리한 요구를 구절구절 설명하는 하찮은 처지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그의 혼을 쏙 빼앗아 갔을까. 동등한 배려라도 누구한테 만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준민은 김 중사님의 눈치만 보며 병들어가고 있다. 나는 그가 평범하게 생활하길 원한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눈치 보며 일하고 가끔은 웃으면서 장난도 치는 평범한 생활을.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어떤 논리로도 준민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그는 상처받은 뒤,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의 행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내일부터 다시 김 중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용쓰는 준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었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들려와 회상에서 깨어났다. 밥알이 잘 안 떼지는 모양이었다. 준민은 한쪽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쇠 굵개를 포개어 잡고 바닥을 긁고 있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려 뒤를 돌아봤다. 후임이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고 말했다.

“가기 전에 준민이 좀 도와줘. 대걸레 들고 와서 바닥을 문질러봐.”

후임은 뒤꿈치를 들고 무릎 꿇은 준민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살피더니 다시 내 옆으로 돌아왔다.

“왜 그냥 와?”

“다 떼셨습니다. 굳이 대걸레로 안 문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한마디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만두었다. 후임한테 이만 가 보라고 손짓했다. 후임은 신나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숨을 내쉬며 준민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으로 허리 받쳐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뒤로 젖혔다. 긴 신음을 내뿜었을 때, 내 눈과 마주쳤다. 그는 방긋 웃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아침 요리를 끝낼

무렵, 사람들이 몰려왔다. 고기를 듬뿍 넣어 기름이 동실동실 떠다니는 김치찌개와 케첩 범벅인 소시지볶음은 인기 많은 메뉴였다. 식판에 음식을 퍼 담다가 떨어뜨리더라도 하면 손으로 주워 먹었다. 아주 가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때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등을 돌려보니 김 중사가 출근했다. 산발 머리 쪽대기에는 소금 같은 비듬이 뿌려져 있었다. 눈은 게슴츠레 풀려 있었고 비스듬히 쓴 안경이 반쯤 벗겨지려 했다. 찢지도 않고 바로 출근했음을 한눈에 알아봤다. 나는 못 본 척 다시 돌아서려는데 준민은 폴짝거리며 김 중사에게 달려갔다.

“김 중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 중사는 고개만 대충 까닥였다. 준민은 지나가려는 김 중사를 세우고 말을 이어갔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날에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국물 맛이 정말 진합니다! 혹시 식사 하십니까?”

김 중사는 눈을 부릅떠 준민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래서 아침마다 취사장에 오기가 싫다니까! 조용히 있고 싶은데, 네가 항상 말을 걸어서 나도 입을 열게 되잖아! 그렇다고 영양가 있는 질문도 아니고.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내용뿐이니까!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어렵니?”

김 중사는 씩씩거리면서 다시 밖으로 나갔다. 신경질적으로 문을 꽁 닫아버렸다. 준민은 어깨가 축 처진 채 문을 멍하니 지켜봤다.

점심 메뉴는 스파게티와 함박스테이크, 샐러드, 양송이스트프였다. 어려운 메뉴가 아니라서 부담 없이 끝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익숙하게 제 할 일을 찾아 맡았다. 나는 술에 물을 조금만 받아 스프 가루 세 봉지를 뜯어 부었다. 물에 닿은 가루는 바닥에 가라앉거나 덩어리로 뭉쳐 둥둥 떠다니기도 했다. 이어 거품기를 이용해 잘 풀 어지도록 허리를 숙여 저었다.

준민은 후임한테 샐러드를 준비하라고 시킨 후 스파게티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기 위해 도마와 칼을 챙기러 갔다. 조리대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엄지와 검지로 칼등을 잡고 나머지는 손잡이를 감쌌다. 그리고 껌질을 벗긴 매끈한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 일정한 크기와 두께로 반듯하게 썰어낸 모양이 반달과 흡사했다. 밤하늘에 몰래 갖다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탁탁 울리는 소리 역시 흥겨운 리듬감을 형성했다. 나와 후임은 움직임에 제약을 받았다. 재료에 따라 동작이 빨라지거나 느려졌다. 김 중사도 그 경이로운 모습을 지나치긴 어려웠는지 한동안 지켜봤다.

중대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면요리가 나오는 날에는 모두가 한꺼번에 와서 먹는다. 면이 붙어버리면 맛의 질이 확연히 떨어지는데, 그럴 때면 우리의 노고를 무시한 채 구박만 할 뿐이다.

부대 사람들로 붐비던 식당은 하나, 둘 빠지면 서 자리가 생겼다. 우리도 밥 먹을 준비를 했다. 김 중사도 본인의 식판을 찾아 꺼냈다. 나와 준민과 후임은 음식을 무조건 가득 퍼담았다. 담을 공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위로 쌓아 올렸다. 음식은 저들끼리 마구 뒤섞여져서 고유한 맛을 잃는 중이었다. 담아보니 과연 다 먹을 수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눈앞에 놔두고 절제하길란 어려웠다.

반대로 김 중사의 식판은 레스토랑에서나 나올 법한 고급스러움을 풍겼다. 조화롭게 배치된 음식들은 언뜻 보면 모형으로 착각할 만큼 정교하고 때깔이 고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흠뻑했다. 김 중사는 테이블 곁머리에서 앉았다. 나는 그의 자리와 세 칸 정도 떨어져 앉았다. 후임도 곧바로 내 옆에 앉았다. 준민은 음식을

제일 먼저 피담았으면서 앉지 않고 기다렸다. 김 중사가 앉자 곧바로 옆에 딱 붙어 앉았다. 그는 김 중사에게 식사 맛있게 하라고 말했다. 김 중사도 맛있게 먹으라고 답했다. 우리는 테이블 주변에 건더기를 흘리며 게걸스럽게 씹어 먹었다.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했다.

그때 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병사가 한 손에는 박카스 세트를, 다른 손에는 편지봉투를 들고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 병사는 타 중대 사람으로 얼굴만 알고 있었다. 그는 식사하는 간부한테 다가가서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경례했다. 간부는 경례를 받아줬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사는 편지와 박카스 세트를 주면서 말했다. 간부는 병사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 많았고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박수갈채를 보냈다.

조용해질 무렵, 다시 밥을 먹는 데 집중했다. 준민의 식판에는 음식이 절반가량 사라진 상태였다. 그의 양 볼은 개구리처럼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볼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음식을 고통스럽게 씹고 있었다. 간혹 음식이 입 밖으로 나올까 봐 손가락 뒷면으로 입술에 갖다 대어 막기도 했다. 그 과정을 반복하니 볼이 조금 수그러졌다. 식도에 공기가 통하면서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지 김 중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역 날엔 꼭 김 중사님께 편지 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심하게 뭉개져서 아기가 웅얼대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와 음식을 뱉을 뻔했다. 준민은 여전히 내용물을 오몰거리고 있었다.

김 중사는 준민을 흘깃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테이블 위로 내려쳤다. “내가 밥 먹을 때는 말 걸지 말라고 했지.” 김 중사는 손으로 입을 한번 문지르고 남은 음식을 삼킨 후 말을 이었다.

“입에 음식물 보여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으라고 몇 번을 말해줘야 해! 필요한 말이면 최소한 입에 음식이 보이지 말아야지. 너는 기본을 모르니? 그리고 나는 네가 편지를 주든 말든 신경 안 써!”

“예 알겠습니다...”

김 중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식판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잔반실로 향했다. 준민은 입을 오몰대며 가만히 고개를 숙여 식판을 응시했다.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처럼 준민과 붙어있으면 나에게도 귀찮고 스트레스받는 일이 드물게 따라왔다. 때때로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있어야 몸이 편하다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준민의 전역까지 어느덧 5일이 남았다. 외박은 물론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을 한지가 벌써 5개월이 넘어갔다. 그는 자신이 터득한 청소 요령을 후임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작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후임은 대답 없이 따라 했지만, 대충 흉내만 낼 뿐이었다. 준민은 후임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네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김 중사님한테 혼나게 될 거야. 그러면 속상하잖아? 지금 제대로 배워야 나중에 편할 수 있어.”

후임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이 과정들이 무의미한 짓이라고 여기는 듯하였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해?! 네가 아직도 신병인 줄 알아!”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와 준민은 소리 나는 데로 뛰어갔다. 김 중사가 사과를 쥐고 흔들며 후임을 야단치고 있었다.

“곧 네 선임들도 전역하고, 후임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사과 자르는 법을 아직도 몰라! 그 조그만 칼로 언제 다 자르게! 절단기를 쓸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야!”

후임의 주먹은 좌우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물건 위치는 왜 몰라? 평소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고! 정신 안 차리니?”

후임은 참다못해 소리를 질렀다. “선임이 일을 혼자 해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은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제가 뭘 할니까!”

김 중사는 준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후임의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준민은 당황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전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애 상태가 왜 이러는데! 네가 제대로 안 가르쳤겠지? 너만 잘하면 돼? 후임한테 시키라고 말했잖아! 왜 계속 쉬는 시간에 일하냐고!”

준민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후임한테 일을 시키면 제대로 마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해 줍니다.”

“네가 마무리를 왜 짓는데! 그것도 후임 시키면 되잖아!”

“계속 시키기는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후임이 하기 싫은 눈치를 쥐도 참았습니다. 저도 하기 싫었지만, 일이 난장판이면 김 중사님이 화내시니 그랬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후임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옆에서 돕기도 했습니다.”

“후임이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네가 뭘데 자꾸 멋대로 행동해!”

준민의 동공이 축축해졌다. “취사장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오로지 김 중사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칭찬도 받고 혼나지 않으려고 항상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일했습니다.”

“말대꾸하지 말라고!”

김 중사는 고함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바닥에 던졌다. 사과는 퍼석거리며 깨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김 중사는 폭언을 퍼부었다.

“왜 자꾸 말대꾸해! 내가 휴가 반납하라고 부탁했어? 네가 원해서 한 거잖아! 날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너야. 아침마다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사소한 질문할 때마다 스트레스야! 군 복무하면서 너 같은 애는 처음 봐! 꼴도 보기 싫으니깐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준민은 고개를 숙여 미세하게 흐느꼈다. 눈물과 콧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턱 끝에 물방울이 맺혔다. 고개를 저어 옷으로 닦았다. 김 중사는 나와 후임에게 사과 조각을 치우라고 시킨 후, 자리를 떠났다. 김 중사가 떠나자마자 그는 참았던 눈물을 팔팔 쏟아냈다. 손등으로 닦아내도 눈물을 쉴 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어쩔 줄 몰라서 그의 눈물이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변화가 생겼다. 준민은 김 중사가 보이기만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짹째 자리를 피했다. 그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불러 김 중사가 갔는지 물어보았다. 안 보인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주변을 경계하며 나왔다.

후임은 준민을 불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준민은 대꾸하지 않고 본인 할 일에만 집중했다. 그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다. 입만 꼭 닫았다.

다음 날이 지나고, 또 다음 날이 되어도 준민은 여전히 김 중사를 피했다. 김 중사 역시 준민

을 부르거나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조용한 나날을 그토록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다. 지금처럼 조용히 지내고 김 중사를 피해 다니면서 설렁설렁 일을 한다면 내 전역일도 코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준민이 전역을 한다. 그는 김 중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격려했다. 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게실에 들어가 보니 손톱을 깨물던 준민은 화들짝 놀라 눈을 번뜩였다.

“뭘 하고 있었어?” 내가 묻자, 준민은 그냥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 저녁만 하면 진짜 끝이네. 기분이 어때?”

“뭘... 좋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해...”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너한테서도 배운 점이 많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준민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오른쪽 허벅지가 가려운지 살살 긁었는데, 바지 주머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머니에 뭘가 들어 있어, 라고 물었다.

“그냥 이면지야. 아까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준민은 그렇게 말한 뒤, 이면지를 버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침상에 드러눕던 중, 목이 말라 식당으로 갔다.

식당 홀에는 준민과 김 중사가 있었다. 김 중사는 서너 장은 돼 보이는 편지를 펼치며 읽고 있었다. 준민은 그 앞에서 몸을 배배 꼬는 척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잠시 후, 김 중사는 다 읽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준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민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김 중사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쳤다.

“사진 찍을래?” 김 중사가 물었다. 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재차 확인했다.

“정말입니까?”

“어.”

“이거 꿈입니까? 거짓말이면 또 올 수 있습니까...?”

“현실 맞다고!”

준민은 조금 전의 소심함을 잊고 생기발랄하게 폴짝거리며 만세를 불렀다.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기쁨을 표출했다.

나는 확신했다. 그가 호구라는 것을.

소설-심사평

올해는 소설 응모작이 단 두 편이다. 웹소설을 비롯한 대중적 스토리텔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본격 소설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이 바야흐로 신춘문에 시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응모작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대문화상에 응모해 준 학생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 두 편의 소설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두 편 모두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인간관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상력 또한 경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는 군대생활(김민준의 「아무도 중사에게 편지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가족(여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파탄난 가족관계(나혜찬의 「수영이와 바다」)를 배경으로, 어긋난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민준의 작품은 취사병 ‘준민’(작가명을 뒤집어 놓은 듯한)이 취사병을 관리하는 ‘김 중

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 준민의 행동을 번번이 좌절시키는 ‘김 중사’의 알 수 없는 대응 방식의 팽팽한 긴장을 근간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문제는 취사병 사이에서 ‘김 중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다는 소문(소설에서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민’은 어째서 ‘김 중사’에게 그토록 노골적인 충성의 자세를 유지하려 했느냐는 것. 취사병 초기에 큰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김 중사’가 기적같이 해결해 주는 장면에서 ‘준민’의 충성심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작품 초반에 ‘준민’이 휴가까지 반납해 가며 취사병 생활에 진심을 다하려 하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반면 ‘김 중사’는 그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촌테레 성향을 가진 ‘김 중사’의 평소 행동을 보자면 ‘준민’의 충성심에 대해서 노골적인 혐오감을 표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장면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준민’의 동기인 ‘나’의 관찰자적 위치가 그 이유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보니 ‘준민’의 과도한 충성심과 ‘김

중사’의 이해하기 어려운 반감은 마지막에 이르러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줄 때 다소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물들에 대해서 행위의 동기를 충분히 납득하게 만드는 플롯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소설에 대한 기본기는 충분하나 다소 거칠고 추상적인 문장이 소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만 더 같고 닮는다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니 좌절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나혜찬의 작품은 따옴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간접화법으로 처리하는 데서부터 능숙함이 느껴진다. 여동생(수정)의 의문의 죽음이 부모의 이혼으로 이어지고, 할머니 집에 버려진 ‘나’는 그곳에서도 탈출을 꿈꾼다. 대학(심리 중심의 이 소설답게 상담심리 전공)에 입학했지만, 그곳에도 ‘나’는 주변인으로 지내다가, 멋진 ‘바다’를 만나 동거를 하고 졸업 무렵 쿨하게 헤어지는 이야기. 소설 전체는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나’를 파멸로 몰아간 것은 여동생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정보는 텅 비어 있다. 그 빈약한 정보는 작품 전체에 설득

력을 부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 신비한 중심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지탱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 ‘바다’와의 만남은 로맨스 만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데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작품의 무게를 덜어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바다’와의 동거와 쿨한 헤어짐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여동생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고 ‘우울’에 사로잡혀 살았던 증상을 떠나보낸다. ‘바다’를 통해서 보내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복잡한 심리 변화는 적절하게 시적인 언어들을 만나 독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나’의 모든 슬픔이 여름에 일어났다는 트라우마는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 ‘나’가 만든 불행이었다는 깨달음을 통해 해소된다. 다소 작위적인 마무리 진술이긴 하지만, 과도하지 않아 절제된 인상을 준다. 거기에 안정된 문장력을 더한다면,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오문석 교수

(국어국문학과)



아시아 최대 **웰에이징 빅데이터**로,
전 생애의 '건강한 삶·편리한 삶·행복한 삶'을 설계하다.

목표

THE 세계대학평가 **TOP 500** 진입

비전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건강웰빙분야 **Asia No.1** 달성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 선정
웰에이징
빅데이터

